

Hanyang ChangeMakers

| From Volunteering to
| Social Innovation

목차

01 세상을 향한 한양의 메시지

02 세상을 바꾸는 대학의 사회혁신

교육	사회혁신융합전공, 체인지메이커 액션러닝, APYE Korea	00
연구	SSIR 한국어판 발간, 한양사회혁신포럼	01
봉사	SDGs에 기여하는 사회봉사교과목, 한양해외봉사	02
창업	소셜벤처 육성체계, HUGE Ventures	03
국제협력	아쇼카 U 가입, AVPN 가입, Seventeen Hearts Festival	04
산학협력	디자인씽킹CMG, 더착한성동	05

03 2018 한양을 빛낸 체인지메이커

카이나팀 (이재서, 최경석, 이승훈)	필리핀 저소득 여성 일자리 창출	06
함께걷기길 (엄석준)	시각장애인을 향한 공감	07
성동청년플랫폼 (신상선)	신반장, 지역사회와 대학의 가교가 되다	08
루나팀 (와카스 외 5명)	필리핀 오지에 빛을 밝히다	09
이연희 교수	Knitting으로 사랑을 잇다	10
한울회 (여교직원회)	체인지메이커에게 힘이 되는 울타리	11
심영우, 임세훈	멘토스, 멘토링을 부탁해!	12
이탄	모두를 위한 '배리어프리 맵' 제작	13
D.K.Kim 장학생 12명	D.K.Kim Scholarship 수혜를 사회로 돌리다	14

04 지속가능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학교기업 L.A.C.Studio	15
한양-SK 체인지메이커 육성 업무협약	16
사회적협동조합 락(LAC)	17

05 한눈에 보는 한양의 사회혁신

06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향한 선언과 행동

19

01

HUGE,

세상을 향한 한양의 메시지

세상을 향한 한양의 메시지

Hanyang University for Global Engagement



ADB 무대에서 Stories of HUGE를 발표하는 이영무 총장

한양은 어떤 인재를 글로벌 리더라 하는가?

2019년 1월 18일 오전 9시. 필리핀 아시아개발은행(ADB) 본부. 제7회 Asia Pacific Youth Exchange를 마무리하는 심포지움에 'Stories of HUGE'라는 스페셜 무대가 준비되었다. 이영무 총장이 참석자들에게 두 그룹의 한양인을 소개하는 것으로 세션을 시작한다.

“이들은 APYE를 통해 전혀 새로운 경험을 했고, 내면으로부터 뜻깊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리더란 누구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개받은 와카스는 건설환경공학을 전공하는 파키스탄 출신 유학생이다. 그는 2018년 8월 D.K.Kim Changemaker Scholarship을 받아 제6회 APYE 필리핀에 참가했고, 최근 한양대 친구들을 모아 당시 파견되었던 퀘존지역에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전기 부족으로 겪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개선해 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출발했다고 한다. 낮에 태양에너지를 모아 저녁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소개하고 주민들과 시범적으로 시공한 모습을 자랑스럽게 보여준다. 향후 자금을 모아 2km에 달하는 길에 태양광 고효율 가로등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전한다. 파키스탄 출신의 한양인들이 ADB 무대에서 한양의 정신을 설파하는 모습이 감동적이다.



Project LUNA팀

두 번째 무대로 올라온 팀은 필리핀 나가시, 아테네오 대학 구내식당에서 KAINA라는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들이다. 정책학과 이재서와 이승훈, 파이낸스경제학과 최정석으로 구성된 KAINA팀은 2017년 8월 Social Venture Youth Exchange를 통해 만나 나가시의 저소득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해 보자고 의기투합하면서 결성되었다.

2018년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지역 여성 4명을 고용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재 인근 대학에 2호점 개점을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6개 대학에 카이나 프렌차이즈를 오픈하여 총 36명의 저소득 여성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다. 한편 최근 한양대 봉사단원 20명이 나가시를 방문하여 아테네오 대학, St.이사벨라 대학 학생들과 함께 친환경 의류제작, 지속가능 관광 등 지역주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한다.



Project KAINA 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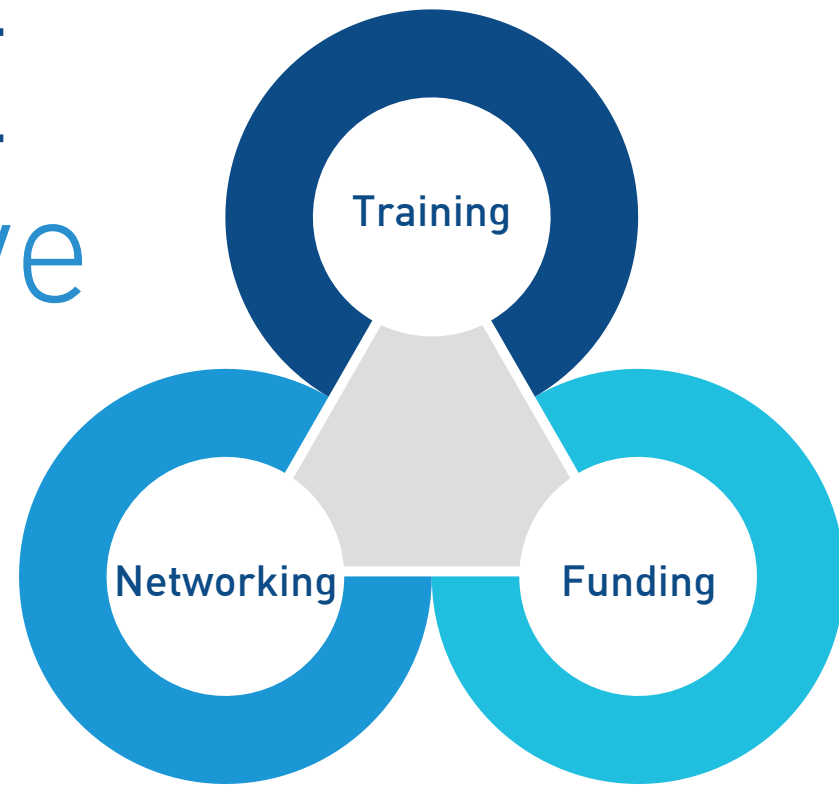
이영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한양의 메시지를 전하며 세션을 마무리한다.

“한양이 생각하는 글로벌 리더는 와카스나 재서와 같이 세상을 마음에 품고 자신의 역량으로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고자 나서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자격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한양은 여러분이 글로벌 리더로서의 삶을 선택하기를 응원하며 적극 돕겠습니다.”



ADB 무대에서 Stories of HUGE를 발표하는 이영무 총장

HUGE Initiative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HUGE (Hanyang University for Global Engagement)

한양이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의 일이다.

1994년 국내 대학 최초로 사회봉사단을 설립하고, 사회봉사교과목 이수율의 무화하였다. 한양인이려면 반드시 교과목을 이수함으로써, 글로벌 리더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공동체에 대한 공감과 책임감을 함양하게 된다. 이러한 토양 위에 학생들은 사회적기업가정신, 사회혁신캡스톤디자인, 사회적경제리더과정, 희망한대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혁신 역량을 키워왔다.

2017년 5월,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ADB 50주년 연차 총회에서 한양 사회혁신의 역사와 비전을 정리한 'HUGE Initiative'를 공표하게 된다. 'HUGE'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한양의 글로벌 비전이다. 'HUGE'를 통해 한양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학생들을 교육(Training)하고 육성된 혁신가들을 서로 연결(Networking)하며,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Funding)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혁신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혁신인재를 양성하게 된다.

개교 80주년, 사회혁신의 새로운 시작

신임 김우승 총장의 새로운 리더십 하에 한양은 개교 80주년을 맞는다. 리더십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한양대학의 3S(Smart, Startup, Social Innovation) 특성화 전략의 한 축인 사회혁신을 향한 힘찬 발걸음은 거침없이 계속될 것이다. 세상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사회봉사에서 그 아픔의 근원을 해결하는 사회혁신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큰 흐름 속에서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사회혁신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것이다. 사회봉사단은 대학의 전통적인 역할인 교육과 연구, 봉사 뿐만 아니라 창업, 국제협력, 산학협력 등의 영역에서 세상이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본 매뉴얼리포트는 지난 1년간 세상을 바꿀 체인지메이커 양성을 위해 한양이 쏟은 노력과 성과를 정리하고 개교 80주년을 맞아 사회혁신의 새로운 여정을 힘차게 출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



HANYANG Social Innovation Platform

02

세상을 바꾸는 대학의 사회혁신

HANYANG
Social Innovation Platform

세상을 바꾸는 대학의 사회혁신

2018년 4월 동아시아 최초로 세계적인 사회혁신 대학들의 네트워크인 '아쇼카 U'에 가입함으로써, 한양대학교는 체인지메이커 양성 고등교육 기관으로서의 세계적 위상을 확보했다. 체인지메이커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Public Mind), 창의적 가치창출역량(Value Creation), 실천을 위한 자원연계역량(Global Networking) 등 3대 핵심역량을 갖추고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리더를 말한다. 이처럼 체인지메이커 캠퍼스로 인정받는 데에는 다양한 사회혁신 관련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과 국내 대학 최초로 학부에 사회혁신융합전공이 신설되었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사회혁신융합전공의 설리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과 정규 교육과정을 잇는 사회혁신 통합 교육과정체계가 완성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016년 10월 아쇼카 U 가입 준비를 시작하면서 '사회혁신'과 관련된 기존 교과목들을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경제학입문(경제학), 디자인과 기술혁신(산업융합학부), CSR 전략(경영학), 협력적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조건(글로벌 CEO 창업융합전공) 등 사회혁신 관련 교과목이 무려 150개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계자들이 모두 놀랄 정도였다.

비전 | Changemakership을 갖춘 사회혁신 인재양성

	Public Mind	Value Creation	Global Networking
구분	과정명	대상자	교육목표
박사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박사과정재학생	Changemakership 이론심화 교육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하는 사회혁신연구 역량양
석사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학부 졸업(예정)자, 재직자	Changemakership 실무심화 교육 조직 내 변화 주도 전문 역량 습득
학부	사회혁신융합전공	학부생 (2~4학년)	Changemakership 기본 교육 사회혁신가로서의 3대 핵심역량 함양
비교과 프로그램	사회적경제리더과정 (학부)	학부 재학생	Changemakership 기초 교육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초 이론 습득 및 현장 경험
	사회적경제리더과정 (일반)	공공, 민간, 비영리 분야 재직자	Changemakership 실전 교육 사회적경제 현장에서 활용될 실전 역량 제고
	한양사회봉사교과목	전체 재학생 (졸업의무이수)	Changemakership 기초 교육 소양교육 2시간, 사회봉사 참여 30시 1학점 부여

Scene #1

세상을 바꾸는 체인지메이커 양성 교육, 사회혁신융합전공

많은 교과목 중 사회혁신의 이론과 실무 역량을 효과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30여개의 과목을 추려내 2018년 1학기 사회혁신융합전공을 오픈하게 되었다.

사회혁신융합전공은 신입학 후 1학기를 이수한 학생이 지원할 수 있으며, 전공 36학점을 이수하면 사회혁신학사 학위를 받게 된다. 주전공과 중복되는 과목은 15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과정은 크게 사회혁신 기초이론, 사회문제 해결실습, 학기제 현장실습(체인지메이커액션러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이론은 사회혁신의 이해, 국제개발 협력의 이해, 체인지메이커십 등 공동체에 대한 공감력을 키우는 기초교육으로 구성되고, 사회문제 해결실습은 사회혁신 캡스톤디자인과 같이 실제 사회문제를 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실습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체인지메이커 액션러닝을 통해 사회혁신 기업이나 국제개발현장에서 한 학기 동안 자신의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사회혁신역량을 키우게 된다.

2018년 1학기 첫 전공생을 모집한 이래 매학기 20여명 내외의 학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2019년 1학기 현재 56명의 학생이 세상을 바꿀 사회혁신가로서의 역량을 개발하고 있다.

평소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경영학부 최나은 학생. 디자인씽킹으로 사회문제 해결 솔루션을 도출하는 사회혁신 캡스톤디자인 수업, 아시아태평양 각지에서 모인 청년들과 함께 필리핀 낙후지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APYE(Asia Pacific Youth Exchange) 등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디자인씽킹 방법론을 활용하여 학교생활의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하는 Youth Changemakers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기도 했다.

자신의 관심분야에서 커리어를 쌓을 수 없을까 고민하던 그에게 2018년 2월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사회혁신융합전공의 장기현장실습 교과목인 체인지메이커 액션러닝을 통해 국내 대표적 사회혁신 기업인 임팩트스퀘어에서 한 학기 동안 현장실습 기회를 얻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의 활동경험과 역량을 확인한 임팩트스퀘어 측으로부터 현장실습이 끝나기도 전에 러브콜을 받아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

이처럼 체인지메이커 액션러닝은 학생들의 사회혁신에 대한 관심을 커리어로 잇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각광받고 있다. 일반적인 현장실습 교과목과 달리 참여 학생이 자신의 사회혁신 아이디어를 현장실습 기업에서 실행해보는 실전 경험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진로탐색이 가능하다. 기업의 입장에서 자신의 철학에 부합하고 미션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DB에서 인턴십을 수행하고 있는 인다솜 학생

Scene #2

'사회혁신'을 커리어로 잇는 체인지메이커 액션러닝

체인지메이커 액션러닝은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특히 국제개발협력사업과 연계한 현장실습 기회가 많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학과 인다솜 학생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2018년 2학기에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했으며, 2019년 1학기에는 관광학부 김민지 등 5명의 학생이 학교기업을 통해 필리핀 현지 소셜벤처인 KAINA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하고 있다.



L.A.C.Studio 현장실습 in KAINA

해외현장실습의 경우, KAINA의 사례처럼 HUGE 프로그램을 통해 발굴된 학생 주도 해외 소셜벤처 프로젝트를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다. 이 경우, 항공료 및 생활비 지원은 물론 사회혁신 관련 수업 및 영어회화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된다.

다양한 사회혁신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역량과 관심사를 파악하고 있는 사회혁신센터는 체인지메이커 액션러닝을 활용하여 86개의 국내의 사회혁신 기관들에 최적의 사회혁신 인재를 파견할 계획이다.

2018년 도입된 체인지메이커 액션러닝은 도입 첫해 총 4명이 수강했으며, 2019년 1학기에만 7명의 학생이 수강하고 있어, 글로벌 사회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한양대학교 사회혁신센터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상을 바꾸는 대학의 사회혁신

APYE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청년들과 함께 2015년 UN이 채택한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 17가지의 달성과정과 지역개발 협력활동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매년 방학기간동안 필리핀, 태국, 베트남, 한국에서 진행된다. 2018년 여름 한양대학교가 UYA(Urban Youth Academy), ADB(Asian Development Bank),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와 공동으로 2018 APYE Korea를 주최했다.

2018 APYE Korea는 “Social Venture for SDGs”라는 주제 하에 16개국 160명의 청년들이 참여하여 다문화가정의 교육격차, 쓰레기 재활용, 아이돌 붐, 장애인 정보격차, 전통시장 침체 등 성동구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 모델 도출을 목표로 2018년 8월 12일부터 20일까지 8박 9일간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청년들과 팀을 이뤄 우리 주변의 문제들에 공감하고 솔루션을 디자인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Leadership Training, 문제의 현장에서 지역주민, 멘토와 함께 스스로 해결방안을 도출해 보는 Local Immersion과 각 팀의 발표를 듣고 토론하는 Symposium에 참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 공동의 목표인 SDGs 달성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글로벌 사회혁신 리더로서 한 단계 성장하게 된다.



Local Immersion

행사의 마지막 날은 왕십리 광장에서 성동주민들에게 자신들이 도출한 해결방안을 설명하고, 참여를 호소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Scene #3

사회혁신 교류를 통한 성장, APYE Korea



Symposium

다문화가정과 교육의 인터뷰에 참여했던 베트남 이주여성의 가족이 왕십리 광장을 찾아 참가자들의 발표내용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모습은 모두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기도 했다.

한편 전통시장 활성화 그룹에서 마장시장을 연구한 Ttok팀은 심포지움에서 마장시장의 시그니처 상품에 대한 기획과 마케팅 솔루션을 제안하여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되었고, 2학기에 진행된 소셜벤처 부트캠프를 통해 아이디어의 실행가능성을 높이는 과정을 거쳤으며 후속 프로젝트로 연계하여 실행을 준비하고 있다.

2018 APYE Korea는 160여 명이 함께 도출한 24개의 프로젝트 아이디어가 아니라, 세계에서 온 청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성동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성장을 격려하는 감동을 나눌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의 성장을 돕는 리더라야 세상을 바꾸는 체인지메이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18 APYE Korea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청년들의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했을 뿐만 아니라 LINC+사업단, 국제처, 아태지역연구센터, ERICA캠퍼스 사회봉사단, 성동구청, 성동청년지원센터, 필리핀 부통령실, SK 행복나눔재단, 영국문화원, CSR포럼, 성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새활용플라자, 친해교육사회적협동조합,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성동상생도시센터 등 사회혁신의 꿈을 함께 하는 많은 파트너기관이 참여함으로써, 사회혁신 기관들의 글로벌 협력 네트워킹의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다.

한양대학교는 2018년 2월 스탠퍼드 대학과 “스탠퍼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 한국어판 독점 계약을 맺었다. 스탠퍼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사회혁신 학술지로, 스탠퍼드 대학의 자선-시민사회센터(Stanford Center for Philanthropy and Civil Society)에서 발간하고 있다. 해외판권은 인도, 중국, 한국만이 보유하고 있으며 세 국가 중 대학이 판권을 보유한 것은 한국의 한양대학교가 유일하다.

스탠퍼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는 국내에서 사회혁신 바람이 불기 이전부터, 몇 안 되는 소셜섹터의 학술 레퍼런스였다. 정식 번역본이 출간 되지 않아, 소셜섹터 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자체적으로 번역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공유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한양대학교의 정식 판권 계약을 통해 국내에서도 양질의 사회혁신 학술 콘텐츠 공급이 가능해졌다.

한양대학교는 아쇼카 U 체인지메이커 캠퍼스 가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과 비교과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혁신 연구와 학술활동이 미약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일환으로 스탠퍼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 국내판 발간을 추진하게 되었다.

2018년 2월 계약 체결 이후,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신현상 교수의 주도로 스탠퍼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 한국어판 출판을 위한 팀이 꾸려졌다. 한양대학교 사회혁신위원회 소속 위원부터 성수벌리의 사회혁신 전문가, 한양대학교 학생 등 다양한 구성원이 모였다. 특히 한양대학교 재학생들에게는, 사회혁신 콘텐츠 학습 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한국어판 1, 2호 번역작업에 사회혁신융합전공을 이수중인 이재명, 서정우, 신재아, 김소희, 김은주 학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정식 번역자로 크레딧을 올리며 개인적 확실한 성과로 의미를 살릴 수 있게 되었다.

2018년 11월 12일에 발간된 한국어판 1호에는 임팩트 측정, 국제개발협력, CSR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룬 총 10편의 기사가 실렸다.

Scene #4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한국어판 발간



한국어판 1호 발간을 기념하여 2018년 11월, 한양대학교는 ‘스탠퍼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 한국어판 발간 기념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 주제는 ‘Asian Solutions’로, 아시아 전역의 사회혁신가를 초청하여 아시아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솔루션에 대한 발제가 진행되었다.

스탠퍼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의 발행인 마이클 보스(Michael Voss), 편집인 에릭 니(Eric Nee)가 오프닝 세션을 직접 진행을 맡았으며, 약 150여명의 국내외 소셜섹터 현업 종사자와 연구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스탠퍼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 한국어판 발간에 대한 반응 역시 뜨겁다. 컨퍼런스 개최 이후 한국어판 정기구독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 스탠퍼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 정기구독권은 한양대학교 학교기업 L.A.C Studio 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 수익은 사회혁신 연구와 학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재투자될 예정이다.

향후 국내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집필한 우수한 사회혁신 연구와 국내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게재함으로써, 사회혁신 연구분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세상을 바꾸는 대학의 사회혁신

2018년 8월 14일(화) 서울캠퍼스 신본관에서 “사회혁신을 위한 대학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2018 한양사회혁신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는 마리아 레오노르 로브레도(Maria Leonor G. Robredo) 필리핀 부통령과 윤호중 국회의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김인선 원장, KOICA 송진호 상임이사, SK행복나눔재단 김용갑 총괄본부장, 이해영 아쇼카코리아 대표 등 사회혁신을 선도하는 대표자들과 한양대학교의 사회혁신 의사참여 기구인 사회혁신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사진 (상단) 최정석 학생, 김형민 대표, 성태현 LINC+사업단장, 김우승 ERICA 부총장, 이승철 경영부총장, 이해영 아쇼카코리아 대표, 오동석 학생, 이재서 학생
사진 (하단) 김성환 단장, 김종량 이사장, Maria Robredo 필리핀 부통령, 이영무 총장, 윤호중 의원 (좌측부터)

이날 포럼에서 김종량 한양재단 이사장은 “우리대학의 건학이념인 사랑의 실천을 바탕으로 교육과 더불어 사회에 나눔을 실천하는 인재를 양성해 나가야 한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포럼에서 특별강연을 맡은 레니 로브레도 부통령은 “청년 리더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대학이 함께 고민하고 실현 가능하게 도와줘야 한다”며 사회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의 역할을 제시했다. 이영무 한양대 총장은 “우리대학의 재학생과 동문이 한마음 한뜻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더불어 나눔을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cene #5

한양사회혁신포럼 개최 (Hanyang Social Innovation Forum)

이 행사는 2018 APYE Korea와 연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 SDGs 달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을 조명하고, 차세대 리더인 대학생들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패널토론
김성환 단장, 윤호중 의원, Maria Robredo 필리핀 부통령, 이영무 총장, 이해영 아쇼카코리아 대표 (좌측부터)

패널토론자들은 SDGs 달성에 청년들이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으며 대학, 정부, 국제기구, 민간기구 등은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소셜벤처 카이나와 라인케어를 운영하고 있는 학생들이 초대되어,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실행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전해줌으로써 행사의 취지가 더욱 빛날 수 있었다.



Robredo 필리핀 부통령과 함께
카이나 최정석, 이재서, Maria Robredo 필리핀 부통령, 라인케어 오동석 (좌측부터)

세상을 바꾸는 체인지메이커 양성을 지향하는 한양대학교는 학생들의 사회적 신역량 강화를 위해 대표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사회혁신융합전공과 사회봉사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혁신융합전공이 전문가로서 성장하기 위한 핵심역량을 갖추는 기본 교육과정이라고 한다면, 사회봉사교과목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를 이끌어갈 리더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기초적인 소양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참여실천형 교과목인 사회봉사교과목을 졸업필수요건으로 지정함으로써, 사랑의 실천이란 건학이념을 실현하고자 한다. 참여자는 2시간의 필수소양교육을 이수하고, 봉사 현장에서 30시간의 봉사활동을 이수하면 1학점을 얻게 된다. 사회봉사교과목은 연 4학기제(1학기, 여름학기, 2학기, 겨울학기)로 운영되는데, 2018년 389개의 프로그램에 3109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본교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학생들의 사회봉사교과목 활동을 SDGs와 긴밀히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UN 192개국의 합의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전 인류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 달성해야할 17가지 목표인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의 연계를 통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학생 개개인이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한층 크게 느낄 수 있게 되었다.

2018년 한 해 17개 SDGs 목표와 관련된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봉사교과목 중 35%인 1131명이 SDGs 4번 Quality Education(질 좋은 교육) 달성을 목표로 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공부를 ‘주업’으로 하는 대학생으로서 자연스런 현상으로 이해된다. 그 다음으로 많이 참여한 봉사활동으로는 전체 학생들 중 22%인 708명이 활동한 SDGs 8번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가 주목된다.

Scen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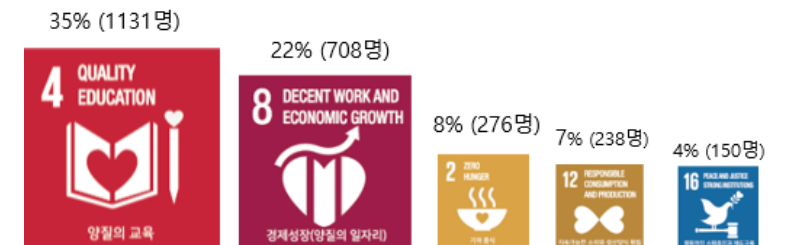
2030년, SDGs 달성에 기여하는 한양사회봉사교과목



SDGs 17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한양의 마음(사랑의 실천)을 담은 ‘한양대학교 version’의 SDGs 로고. 본 로고는 17개 목표를 상징하는 이미지에 ‘Heart’를 담고 있다.

그 밖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봉사프로그램으로 SDGs 2번 Zero Hunger(기아 종식)와 12번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책임있는 소비와 생산)이 8%와 7%를 차지한다. 또한, SDGs 16번인 Peace and Justice Strong Intuitions(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 증진과 제도 구축)와 SDGs 3번 Good Health and Well-Being(건강하고 질 좋은 삶)이 4% 와 3%로 각각 150명, 115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그림으로 보는 한양인의 SDGs 목표별 참여 비중



세상을 바꾸는 대학의 사회혁신

Scene #7

학생이 주도하는 한양해외봉사

2019년 1월, 두 건의 아주 특별한 해외봉사활동이 진행되었다. 하나는 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 주관한 대학 자체개발 해외봉사 공모전에서 선정된 마오그마 지역개발 해외봉사 프로그램과 한양대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파키스탄 유학생들로 구성된 LUNA 프로젝트다.

<Maogma Integrative Development(MID) 프로그램>

MID 프로그램이 진행된 Naga City는 한양대 학생들이 필리핀 저소득층 여성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소셜벤처 KAINA를 개점한 곳이다. 학생들은 KAINA 지원은 물론,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통합적 국제개발을 실천하기 위해 나가시로 향하게 되었다.

청소년 대상 멘토링, 전 주민 대상 의료지원, 컴퓨터 교육, 그리고 한글교육까지, 지역 주민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뜨개질 기술 교육, 친환경 관광상품 개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자체적으로 의류상품을 제작할 수 있는 2명의 여성 발굴, 봉사 와 관광을 연계한 친환경 관광상품 아이디어 도출, 이를 함께 실행할 아테네오 대학 학생그룹 결성과 같은 값진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의료봉사

현재 5명의 현장실습생이 파견되어 KAINA 식당 2, 3호점 개점 준비와 함께 학교기업과 연계한 의류제작, 봉사관광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2019년 7월 2차 MID 해외봉사단 파견으로 1차 봉사단과 현장실습생들의 성과 위에서 마오그마 빌리지 통합개발의 기반을 갖추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가시 주민들과 단체사진



뜨개질 클래스

<빛을 심는 '사회혁신'- LUNA 프로젝트>

한밤중 전구가 없는 마을에서의 삶을 상상해보라. 와카스(Waqas)는 아름답지만 깜깜한 마을에 빛을 선물하기 위해 필리핀 퀘존으로 떠났다.

와카스의 여정은 D.K.Kim Changemaker Scholarship을 받아 2018년 8월 APYE를 참가하면서 시작되었다. 필리핀 퀘존지역에서의 Local Immersion을 통해 와카스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마을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꿈꾸게 되었다.



전구앞에서 논의하는 루나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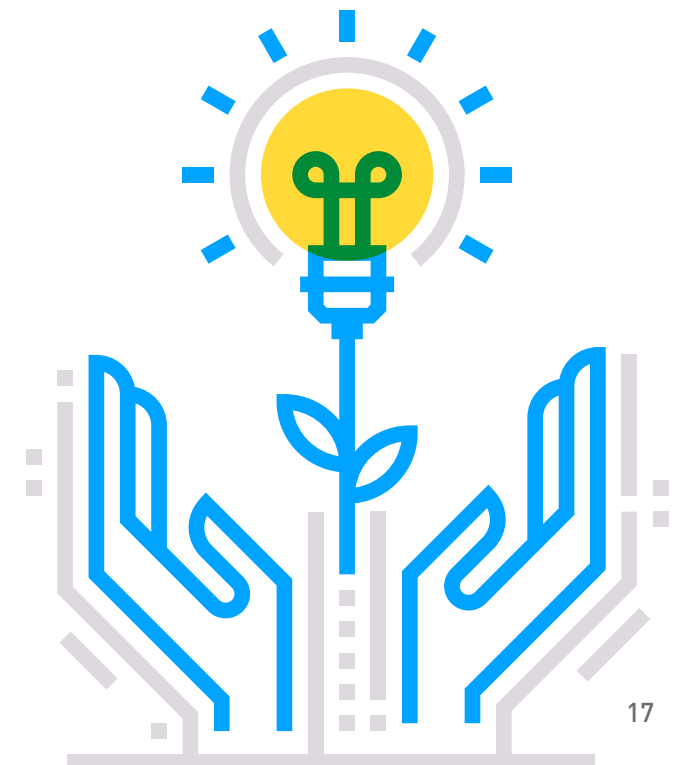


전구를 밝힌 루나팀



루나팀과 주민단체

와카스의 꿈은 Seventeen Hearts Festival에서 유학생 해외봉사 우수 아이디어에 선정되면서 실현되기 시작했다. 동료 파키스탄 유학생 5명과 APYE에 함께 참가했던 한국 학생을 설득하여 봉사단을 꾸려, 2019년 1월 퀘존지역의 한 마을에 '빛을 심어주고' 돌아왔다.



세상을 바꾸는 대학의 사회혁신

Scene #8

소셜벤처 창업지원체계 구축



소셜벤처 부트캠프

2017년 5월 공표된 HUGE 이니셔티브(Hanyang University for Global Engagement)를 기반으로, 2018년 사회문제를 비즈니스모델로 해결하는 소셜벤처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소셜벤처 창업지원체계는 기본적으로 HUGE 이니셔티브의 네트워킹(Networking), 트레이닝(Training), 펀딩(Funding) 체계를 따르고 있다. 사회혁신 인재로서 마인드셋을 함양하기 위한 교류와 교육을 바탕으로 실제 사업화지원금을 받아 창업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다.

소셜벤처 창업지원 단계별 프로그램



<Networking>

Asia Pacific Youth Exchange(아시아태평양 청년 교류 프로그램)는 한양대가 아시아개발은행(ADB), 유엔개발계획(UNDP), 열반유스아카데미(YUA)와 공동 운영하는 국제 교류프로그램으로, 아태지역 청년들이 UN이 채택한 17가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을 목표로 글로벌 리더십을 함양하고,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프로그램이다. 2018년 태국, 필리핀, 한국에서 열린 APYE, SVYE 프로그램에 총 66명의 재학생이 참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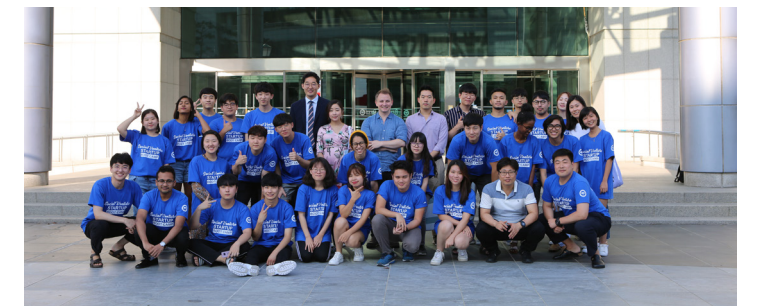
<Training>

APYE에 참여하여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한 대다수의 학생들이 후속 프로젝트를 이어가려는 의지를 보인다. 이 학생들과 더불어, 기존에 소셜벤처 창업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에게 소셜벤처 창업동아리 활동, 소셜벤처 부트캠프 참여 등을 권장한다. 소셜벤처 창업동아리 소속 학생들은 재학생 간의 네트워킹, 창업 멘토링, 컨퍼런스 참가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셜벤처 부트캠프는 창업 아이디어를 갖춘 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창업 실전 교육으로, 학생들은 3일에서 5일간 마케팅, 재무, 아이디어 피칭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소화하게 된다. 2018학년도에 총 18개 창업팀, 62명 학생이 소셜벤처 부트캠프에 참여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배출했다. 전년도 대비 전체 참가자 수가 증가했는데, 특히 이공계 참가자들이 4배 이상 증가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소셜벤처 부트캠프에서 비즈니스모델을 고도화하여 실제 사업화에 성공한 2개 팀 모두 기술기반(라인케어, ImpactC) 창업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학도들의 더 큰 활약을 기대하게 만든다.

<Funding>

소셜벤처 창업 프로그램에 충실히 참여하여 비즈니스모델을 검증받은 팀은 모델의 완성도에 따라 LINC+사업단에서 지원하는 사업화 지원금을 받게 된다. 2018학년도에 총 4개 팀에 약 3,3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았다.



소셜벤처 부트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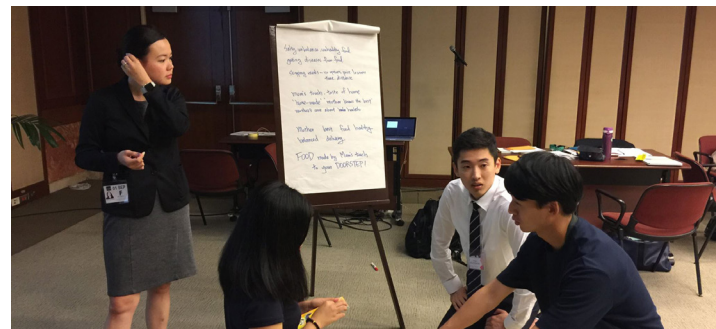
사업화지원

세상을 바꾸는 대학의 사회혁신

지난 2년간 한양대학교는 소셜벤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재학생의 소셜벤처 창업을 지원해왔다. 창업 실전 교육, 이해관계자와 네트워킹 기회 제공, 시드머니 지원 등 학생 창업팀의 발전 단계에 따라 다양한 자원을 제공했다. 2018년 한 해 동안 한양대학교가 배출한 대표적인 소셜벤처를 소개한다.

<KAINA>

2017년 7월에 개최된 Social Venture Youth Exchange를 통해 필리핀 남가시의 철거민들의 열악한 현실과 마주하게 된 한승훈(파이낸스경영 13), 이재서(정책 13), 류지안(국제학 12), 성지훈(영문 12) 학생은 소셜벤처 설립을 결심했다.



카이나(부트캠프)

그들이 방문한 지역은 대형 쇼핑몰 건설로 인해 터져 명령을 받은 주민 다수가 자선단체의 도움을 받아 자리잡은 마오그마 빌리지라는 곳이었다. 주민 모두가 빈곤에 허덕이는 실정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홀로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꾸리기 위해 애쓰던 싱글맘 그룹이었다. 학생들은 주 7일을 일해도 아이와 자신의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비참한 현실에 놓인 싱글맘들에게 한식 요리를 가르치고, 정직원으로 고용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식당을 열기로 하였다.

2017년 8월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진행된 소셜벤처 부트캠프에 참여하고, 11월 Seventeen Hearts Festival의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도전하여 사업화 지원금을 확보하게 되었다.

Scene #9

세상을 바꾸는 커다란 꿈, HUGE Ventures



카이나 사업화지원금



카이나 식당 창업

2018년 5월, 이재서, 성지훈, 한승훈과 최정석(파이낸스경영 15) 학생은 필리핀 남가시 소재 명문대학 아테네오 대학 내 구내식당에 점포를 얻어 카이나 식당 영업을 시작했다. 김밥, 라면, 김치볶음밥 등 필리핀 현지인들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분식류를 판매했다. 반응은 뜨거웠다. 필리핀 여성의 자립을 돕겠다는 학생들의 진심과 현지인의 손 끝에서 재탄생한 한식의 맛이 아테네오 대학에서도 통한 것이다.

2018년 8월에 합류한 이승훈(정책 15)과 원년 멤버인 이재서(정책 13), 최정석(파이낸스경영 15) 학생은 최종적으로 4명의 현지여성을 정직원으로 고용하였다. 안정적인 급여와 더불어 쉬는 날을 보장받게 된 이들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 카이나 식당에서 일을 시작하고 생긴 변화를 얘기하며 이들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끊이지 않는다. 카이나 식당이 만들어낼 개인의 삶의 변화, 나아가 커뮤니티 전체의 변화가 기대된다.



라인케어 비전설명회

<Line Care>

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생 오동석 학생은 2016년도에 개최된 제 1회 Seventeen Hearts Festival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며 사회혁신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페스티벌에 참여하며 자신이 가진 기술력을 이용해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2018년 2월 아시아개발은행에서 개최된 소셜벤처 부트캠프에서 오동석 학생은 필리핀의 열악한 의료접근성 문제에 대해 알게 됐다. 진료 예약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아서 환자들은 몇 시간씩 이어지는 대기를 감내해야만 했다. 의사들의 경우, 환자 차트가 전자화되지 않아 모든 기록을 수기로 관리하고 있었다. 환자 정보가 제대로 관리될 리가 없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동석, 이종호, 조홍현, 나석규(기술경영전문대학원) 학생으로 구성된 라인케어 팀은 환자자와 의사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의료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결심했다.

2018년 5월에 열린 소셜벤처 부트캠프, 11월에 열린 Seventeen Hearts Festival에 참여하여 사업화 가능성을 증명한 라인케어는 현지조사비를 지원받아 필리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성공적인 네트워킹을 진행했다. 현지 파트너로 합류한 아테네오 대학병원 소속 의사, 필리핀 과학기술부 차관 등이 필리핀의 의료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뜻에 함께하기로 한 것이다. 필리핀의 '실리콘벨리'로 불리는 '스프링 밸리'에서는 우수한 개발자 공급에 협력하고 사무공간까지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의료계부터 기술창업 스타트업 씬까지 의료시스템의 혁신에 목말라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페스티벌 소셜벤처 컴피티션

필리핀 스타트업 경진대회 수상

라인케어팀은 국내 법인 설립 후 다수의 국내외 창업경진대회에서 수상하여 8천만원 이상의 상금을 획득했다. 필리핀에서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환자차트 관리 베타서비스를 오픈하여 데이터를 수집중에 있다. 대학병원과 같은 대규모 의료기관이 다수 위치한 마닐라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의료접근성이 낮은 소외지역의 의사와 환자들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Impact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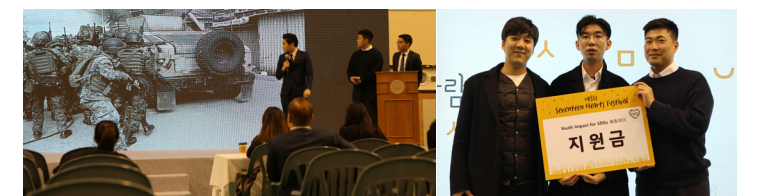
한양대학교 아트테크놀로지학과 김한얼 학생은 2018년 7월에 개최된 SVYE에 참여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소셜벤처 창업, CSR 프로젝트, 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만나며, 이들이 겪는 가장 흔한 문제가 바로 자원조달의 한계라는 점을 발견했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나 실행할 수 있는 자금이 없는 경우, 투자자를 찾아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모르는 경우 등, 훌륭한 아이디어가 자원이 없다는 이유로 사장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Impact C (부트캠프)

김한얼 학생은 같은 학과에 재학중인 서진아 학생, SVYE를 통해 연결된 필리핀의 Aunell Ross Angcos 와 팀을 형성하여 임팩트 투자자와 소셜벤처 창업팀을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을 개발하기로 의기투합했다. 필리핀에서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 소셜 분야에서 체계적인 매칭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다. 동시에 한국에서는 국내 실정에 맞게 봉사활동 정보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 봉사활동의 질을 관리하고 의미있는 경험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2018년 8월 소셜벤처 부트캠프에 참여하여 국내 IT 솔루션 전문가와 팀매칭을 진행, 지속적인 기술 자문을 받게 되었다. 2018년 하반기동안 서울시 대학(원)생 혁신역량강화사업, Seventeen Hearts Festival에 참여하여 비즈니스모델의 가능성을 검증했으며, 2019년 1월, LINC+사업단의 소셜벤처 사업화지원금 1,150만원을 지원받아 봉사활동 정보 공유 플랫폼 개발에 착수했고, 2월에 개인사업자등록을 완료했다.



Impact C (페스티벌 소셜벤처 컴피티션)

Impact C (페스티벌 지원금 확보)

세상을 바꾸는 대학의 사회혁신

Scene #10

글로벌 사회혁신 대학들의 네트워크, 아쇼카 U 가입

Scene #11

Asia Venture Philanthropy Network 가입



체인지메이커사회를 만들기 위한
글로벌 혁신 대학들의 네트워크



2018년 4월, 한양대학교는 동아시아 최초로 글로벌 사회혁신 대학의 네트워크인 아쇼카 U(Ashoka U)의 체인지메이커 캠퍼스(Changemaker Campus)로 최종 선정되었다. 2008년 '아쇼카 U' 이니셔티브가 시작된 이후 10 여년 간 미국의 코넬대학교, 브라운대학교, 존스홉킨스대학교 등 45개의 세계적 명문 대학만이 가입할 수 있었던 네트워크로서, 사회혁신을 선도하는 한양대학의 글로벌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아쇼카 U 심사과정은 매우 까다롭다. 교과과정, 학생활동, 사회혁신에 대한 투자 등을 검토하는 360도 캠퍼스 스캔, 현장 방문심사, 아쇼카 글로벌 패널의 인터뷰로 구성된 세 단계를 모두 통과해야만 체인지메이커 캠퍼스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 2016년 10월부터 약 2년여에 걸친 준비 끝에 성공적으로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성과 뒤에는 사회혁신에 대한 한양대학교의 비전과 전략이 존재했다. '사랑의 실천'이라는 건학정신 하에 한양대학교는 국내 최초로 '사회봉사단'을 설립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해왔다. 2017년, 사회봉사단 산하에 '사회혁신센터'를 설립하여 단순 봉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사회혁신을 위해 소셜벤처 창업지원, 소셜섹터 인턴십 연계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사회혁신에 드라이브를 건 시니어 리더십 또한 빼놓을 수 없다. 같은 해 한양대학교는 중장기 목표로 3S 전략(Smart-Startup-Social Innovation)을 발표하여 한양대학교가 글로벌 사회혁신 선도대학으로 다시 한 번 자리매김 하겠다는 비전을 공유했다.

HUGE 이니셔티브(Hanyang University for Global Engagement)를 발표하여, 네트워킹(Networking), 트레이닝(Training), 펀딩(Funding)으로 구성된 사회혁신활동 지원체계를 갖췄다.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완성되며, 교내외 구성원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사회혁신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든든한 시스템이 생긴 것이다. 한양대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청년들까지 지원하여 글로벌 리더십 함양, 사회혁신 프로젝트 지원 등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한양대학교의 체계적인 인재양성 교육과정 역시 아쇼카 U 가입과정에서 한양대학교의 강점으로 뽑혔다. 한양대학교는 기존에 산발적으로 개설된 사회혁신 교과목을 취합하고, 가장 핵심적인 교과목만을 선별하여 2018년 1학기에 국내 최초로 학부에 '사회혁신융합전공'을 신설했다.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석박사과정과 연계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혁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체계가 완성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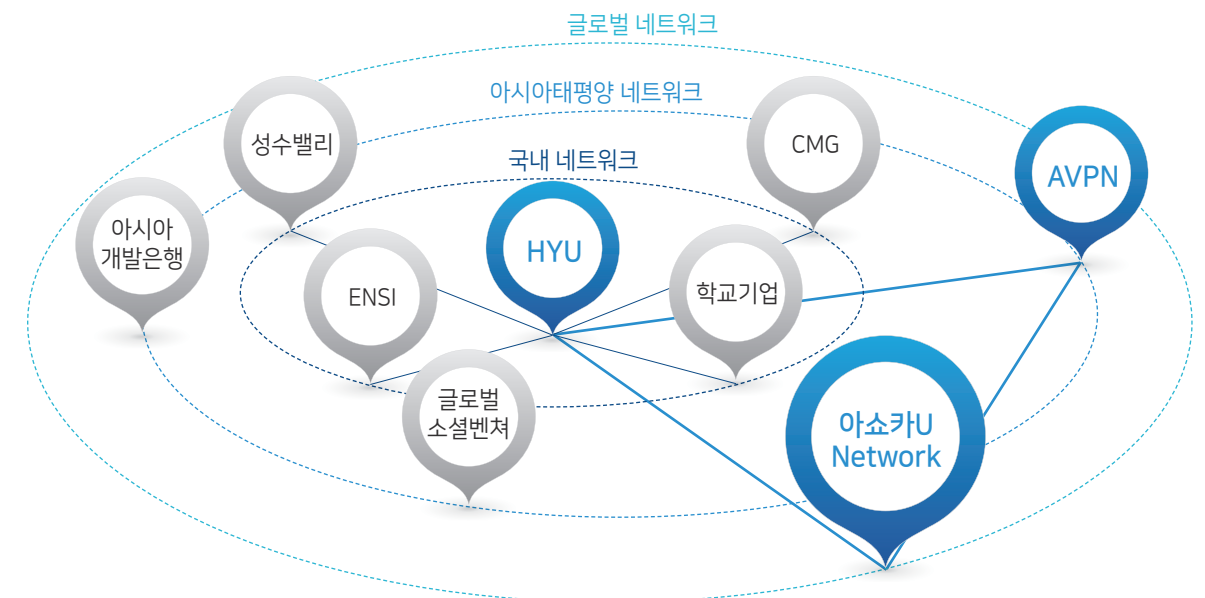
2019년 2월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린 아쇼카 U 체인지메이커 캠퍼스 임명식에서 한양대학교의 체인지 리더(Change Leader)인 김종걸 교수(국제학대학원장)는 "한양대학교가 아쇼카 U의 회원으로 선정된 것은 불과 1년 전(2018년)이지만, 1939년 개교 이래 항상 체인지메이커 캠퍼스의 본질을 쫓아왔다"고 밝혔다. 김종걸 교수는 소감을 마무리하며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어떻게 배움을 실천하는 인재를 양성할 것인지,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다할 것인지 아직 답을 찾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의미 있는 여정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양대학교는 아쇼카 U 체인지메이커캠퍼스 선정에 이어 2018년 5월, Asia Venture Philanthropy Network(AVPN)에 가입했다. AVPN은 자선사업가, 기부자, 임팩트 투자자 등 500여명의 회원 또는 기관으로 구성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사회혁신 네트워크이다. AVPN은 소셜섹터 내의 재정, 인적, 지적 자원을 늘리고, 자본의 효과적인 사용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아시아의 소셜섹터 생태계를 더 다양하고 풍성하게 성장시키는 것이 AVPN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AVPN은 매년 다양한 섹터의 구성원이 아시아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장을 개최하고 있다.

AVPN 가입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 AVPN을 활용하여 아태지역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AVPN 네트워크를 통해 APYE, 소셜벤처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위한 다양한 재정적, 인적 자원조달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의 현장실습 기회 또한 강화되었다. 아쇼카 U 가입 대학이면서 동시에 AVPN의 멤버인 싱가포르경영대학(SMU)의 Lien Centre for Social Innovation에 재학생을 추천하여, 해당 학생이 2019년 1학기 현재 인턴십을 이수하고 있다.

둘째, 한양대학교의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의 의미를 가진다. 한양대학교는 성수밸리로 불리우는 사회혁신 기업들의 클러스터, SK그룹의 지원을 받은 사회혁신교육자네트워크(ENSI) 등 국내 사회혁신 네트워크를 견고히 구축해 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아시아개발은행, 유엔개발계획, Yunus Center at AIT, Mahidol University, Ateneo University 등 국제기구, 대학들과 개별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해 왔다.

AVPN 가입은 아시아 지역의 개별적인 네트워크와 아쇼카 U를 잇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브릿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쇼카 U와 AVPN을 통해 글로벌 사회혁신 네트워크의 중심점으로 거듭나는 한양대학교를 기대해 본다.



세상을 바꾸는 대학의 사회혁신

2016년부터 시작된 Seventeen Hearts Festival(이하 세하페)은 2015년 UN이 선정한 17가지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려는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공유하는 글로벌 사회혁신 축제이다. 제3회 세하페는 2018년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한양대 서울캠퍼스 올림픽체육관에서 진행되었다. 한양대학교 주최, 사회봉사단 사회혁신센터와 LINC+사업단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지난 1년간 발굴하고 길러낸 체인지메이커 활동을 소개하고 전시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제3회 Seventeen Hearts Festival

메인 행사가 진행된 올림픽체육관에서는 SK-한양 체인지 메이커 양성 협약식, 사회혁신융합전공 중심의 한양 사회혁신 활동 발표회, 'Hanyang Social Venture Challenge' 행사, CJ올리브네트웍스-한양 X20 소셜 해커톤(hackathon)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Youth Impact for SDG에서 수상한 팀과 멘토단

Scene #12 Seventeen Hearts Festival



청소년무자를 위한 음대 학생들의 마당극 "우리 소리 한마당" 공연

컨퍼런스 및 적정기술연구학회 주관의 적정기술 국제컨퍼런스가, ITB관에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공동 주관으로 2018 사회적경제리더과정 성과공유회가 열려 늦가을 캠퍼스 곳곳이 사회혁신 관련 굵직굵직한 행사로 물들었다.



SSIR 국제컨퍼런스



적정기술 국제컨퍼런스

Scene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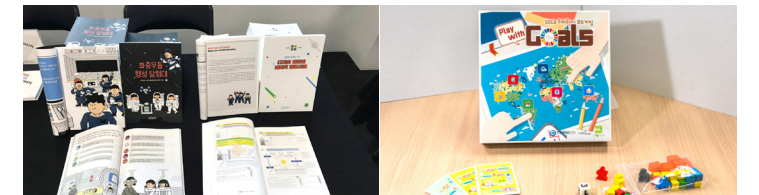
비즈니스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디자인씽킹 체인지메이커그룹

전통적으로 공학계열을 중심으로 산학협력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한양대학교는 산학협력의 새로운 모델 제시를 과업으로 하는 LINC사업을 통해 2017년부터 지역사회 및 기업들과 함께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혁신 산학협력'이라는 선도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처럼 사회문제해결을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집합을 체인지메이커그룹(Changemakers Group, 이하 CMG)이라 한다

디자인씽킹 방법론을 활용하여 교육제도의 획일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디자인씽킹CMG가 결성된 것은 2017년 2월이었다. 결성 첫 해는 그야말로 시행착오의 시기였다. CMG 참여 기업들이 공동의 미션 아래 R&D를 수행하고, R&D 결과를 활용하여 함께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오픈이노베이션의 개념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녹록치 않았다. 20여 차례의 간담회, 워크아웃, 워크숍 등 1년 간의 노력으로 두 가지 아이템을 선정하여 공동 R&D를 추진하였다.

디자인씽킹CMG의 공동 R&D 결과, 별나라 여행을 통해 SDGs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여행기인 '원더북' 출판, SDGs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리터러시 보드

게임 개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메이커 보드게임 개발의 성과를 거두었다. 2019년에는 R&D 성과를 기반으로 학교기업 L.A.C.Studio, 사회적협동조합 락(LAC)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원봉사자, 현장실습생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여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접근방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원더북

SDGs 리터러시 보드게임



메이커 보드게임

구분	참여기관	2018 사업 내역
메이커스 프로젝트	·퍼듀대학교 ·MYSC ·메이커스 ·쓰리디플러스 ·TMD교육그룹 ·오토데스크 ·신도리코	·3D프린트 교육을 활용한 산학협력모델 기반 마련 ·초등 고학년 대상 교재(학생용) '원더북'개발 ·주니어 'Thinker'과정 시범교육 4회 운영(서울/부산/울산) ·교재 및 워크시트 개발 및 출판 ·한양대 원더랩캠퍼스 멘토링 운영 ·메이커 2차 출판 및 교구 개발 ·선도메이커 대상 글로벌 연수 과정 운영(한국과학창의재단 발주) ·메이커 글로벌 포럼 개최
Play Aid Kit 리뉴얼 프로젝트	·한국에자이 ·이랜드 ·올리브스튜디오 ·플레이31 ·MYSC ·언니오빠형누나	·놀이교육 산학협력모델 개발 ·Play Aid Kit 개발 ·놀이소외계층 대상 13회 운영 ·놀이워크숍 총 10회 진행 ·SDGs 리터러시 보드게임 개발

세상을 바꾸는 대학의 사회혁신

THE착한성동은 지역사회와 대학이 협업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 역시 사회혁신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LINC+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지역사회의 중소기업, 소셜벤처, 소상공인과 대학간의 건강한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회혁신 산학협력'의 가치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9년 2월 12일, 성동지역 소상공인협의회와 함께 지역사회 경제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대학과 지역사회 동반성장을 위한 'THE착한성동'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THE착한성동 Kick-off 미팅

THE착한성동은 참여기업, 지역 활동가, 대학 관계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참여 기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착한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THE착한성동의 첫 지역사회 공헌모델은 학교기업 L.A.C.Studio, 사회적협동조합 락(LAC)을 매개로 추진될 예정이다. 학교기업은 학생들의 전공역량을 활용하여 학교기념품을 제작, 판매하는 데 이 과정에서 지역소상공인에게 상품제작을 위탁할 계획이다. 이를 시작으로 대학의 많은 자원이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Scene #14

주체	활동	비고
지역/대학/ THE착한성동기업	- 대학, 지역, 기업 대표단 간담회	2월
지역/대학/ 학생활동단	- THE 착한성동 활동 모니터링 - 대학, 지역, 기업이 함께하는 지역 활동 모색	3~8월
THE착한성동 운영위원회	- 사업 성과 점검 - 사업 참여 기업 평가(재지정 여부 결정 등)	8월
지역/대학/ 학생활동단	- THE 착한성동 활동 모니터링 - 신규 THE 착한성동 후보군 발굴 - 대학, 지역, 기업이 함께하는 지역 활동 모색	9~12월
THE착한성동 운영위원회	- 사업 성과 점검 및 참여 기업 평가(재지정 여부 결정 등) - THE 착한성동 신규 지정 및 사업 발전계획 수립	12월

* 2019 THE착한성동 참여 기업

(사)성동구소기업소상공인회, 희락공방, (주)스마트씨엔피, 참머리방, 월드광고, 꽃향기플라워, 한국이엔아이인터내셔널, 에듀텍, 코드에이, T-Cross, 씨엔케이, K&J 푸드시스템, (주)앙츠, (주)라이너스, (주)에스앤씨랩, (주)액트에듀, 헤렘, 골든스테이지, 아이디어팩토리, 소셜밸런스, Urban Youth Academy (총 21개)

03

2018 한양을 빛낸 체인지메이커

2018 한양을 빛낸 체인지메이커

2018년을 빛낸 한양의 체인지메이커를 소개합니다.
한양의 건학정신을 실천하여 세상을 바꾼 그들의 얘기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카이나팀(이재서, 최정석, 이승훈)_ 필리핀 여성의 자립을 위한 한식 프랜차이즈



저소득층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리핀 나가시에 카이나 식당을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휴학을 감수하고 약 10개월간 필리핀 나가 시에서 생활을 하셨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떤 것이었나요?

아무래도 식당이라는 점에서 식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이 극복해야 하는 대상인 동시에 가장 힘든 점이었습니다. 필리핀과는 달리 한식은 비빔밥이나 김치볶음밥처럼 야채를 많이 사용하다보니 카이나의 메뉴를 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고민 끝에 야채는 작게 썰어서 숨기고 고기류를 돋보이게 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계란말이를 만들 때 파와 당근은 아주 작게 썰어 넣고, 햄은 시각적으로 크게 보이도록 넣는 방식이죠. 같은 양의 야채와 햄을 넣어도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어려웠던 점 한 가지를 더 들자면 외로움이었습니다. 한국과 달리 젊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이 많지도 않고, 언어 문제로 현지 사람들과 일정 수준 이상의 깊은 대화를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가끔씩 외로움이 밀려오는 경우가 있었죠. 물론 그만큼 팀원들끼리 더 의지하고 정이 드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0개월 이상 식당 운영을 지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즐거움입니다. 내 앞가림하기 바쁜 한국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었습니다. 카이나를 운영하면서 저희는 작은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런 변화를 보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자 원동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카이나에서 함께 일했던 어머니들과의 관계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분들을 필리핀어로 어머니라는 뜻인 nanay라고 불렀는데, 정말 카이나의 '어머니'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음식을 하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기념일에는 함께 파티도 하며 일상에 소소한 즐거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메뉴 개발을 함께 하거나 새 메뉴에 냉혹한 평가를 내리주시고, 직접 매출 관리를 하는 등 식당 운영에도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마 어머니들이 아니었으면 진작 문을 닫았을 겁니다.

카이나 식당을 운영하며 가장 보람찬 순간은 언제였나요?

말씀드렸듯이, 저희로 인해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이 큰 즐거움이고 원동력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 가장 보람찼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식당을 오픈한지 넉 달 정도 지날 즈음이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에 출근을 했는데 어머니들의 표정이 유독 밝아 보였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주말에 네 분이서 영화를 봤답니다. 한 어머니는 17년 만에 영화관에 가 봤다고, 너무 즐거워서 월요일 출근길까지 행복했다고 하시더군요. 영화 한 편 본 일이 대수롭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 못하다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몽클했습니다. 그 날 밤에 저희는 정말 더 열심히 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카이나 식당 운영을 통해 본인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나요?

삶의 현장을 제대로 맛보았고, 그 과정에서 팀원 모두 큰 성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장은 소위 '내게는 너무나 익숙한 Comfort Zone'에서 과감하게 벗어났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학교 강의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것, 느끼는 것이 많지만 학교 밖으로 나와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속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학교 밖에서 배운 것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부딪히며 배울 수 있었고, 머릿 속에 담아 둘 때보다 훨씬 선명하게 기억되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밖으로 나와 배웠습니다.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 음식점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 손님으로 오는 사람 모두와 친구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덕분에 타인과 금방 가까워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존의 시장경제 원리에서 벗어나 사람이 중심인 경제에 대해 배웠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운영함으로써, 비용과 편익, 수요와 공급의 시장 경제 속에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매일같이 어떻게 매출을 올릴지 궁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현지에 더 녹아들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어머니들과 즐겁게 일할 수 있을지 고민하니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저희는 '새로운' 것을 많이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속에서 저희가 갖고 있었던 편협한 생각들이 많이 깨지기도 하였고 '함께' 성장함으로써 '나'는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18 한양을 빛낸 체인지메이커

2018년을 빛낸 한양의 체인지메이커를 소개합니다. 한양의 건학정신을 실천하여 세상을 바꾼 그들의 얘기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함께걷기(엄석준)_ 시각장애인을 향한 공감



시각장애인들의 공중화장실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함께걷기 프로젝트'로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함께걷기 프로젝트는 한양대학교와 루트임팩트에서 주관하는 '임팩트베이스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임팩트베이스캠프는 체인지메이커가 되고자하는 청년들이 디자인씽킹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해 보는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함을 발견하기 위해 관찰하던 중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성별 구별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평소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었기에, 저희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팀원 만장일치로 이 문제는 꼭 해결해보자는 의지를 다지고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나요?

가장 어려웠던 점은 시각장애인들을 포함해 관련 기관에 계신 분들의 마음

을 여는 일이었습니다. 기존에 시각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이미 많은 피로감을 느끼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진정성을 바탕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함께걷기 프로젝트'를 통해 어떤 성장이나 인식의 변화가 있었나요?

'장애'에 대한 인식 수준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장애'에 대해서 편협한 인식 속에 살아오고 있었다는 점을 자각했습니다. 단지 '다르다'는 이유로 큰 차별과 불편함 속에서 살아야 하는 불합리와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습니다. 다른 측면으로는 문제해결을 위해서 빠른 행동과 검증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마찬가지로 지겠지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실제상황이 다를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팀원들과 둘러 앉아 회의하고 고민하는 데 들이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실제 현장에 나가거나,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대상들과 소통하는 쪽에 들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함께걷기 프로젝트를 통해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함께걷기는 올해 초까지 성별구별을 위한 점자블록이라는 프로토타입의 검증과정을 거쳤습니다. 검증의 단계가 예상보다 훨씬 늦어져서 작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는데, 검증의 결과들을 정리하고 나니 역시나 저희들이 생각했던 점과 실제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것이 다르다는 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처음부터 도입하고자 했던 프로토타입을 재고하기 위한 점검의 시간과 함께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팀원들을 위한 휴식기간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프로젝트를 통해 알게 된 시각장애인 친구들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성동청년플랫폼(신상선 대표)_ 신반장, 지역사회와 대학의 가교가 되다



신상선 대표님은 성동지역에서 '신반장'이란 이름으로 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만큼 이일 저일 가리지 않고 성동지역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신데요, 2018 한양을 빛낸 체인지메이커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동구 주민들은 거리를 걷다 보면 한양대학교 로고가 그려진 옷을 입고 다니는 학생을 자주 보게 됩니다. '아~ 한양대학생이구나', 그 순간 주민들의 마음 속에서 우리 동네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 친구로만 생각될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양대학교가 우리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확하게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한양대학교는 1953년 현 위치에 교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성동구와 인연을 맺은 이래로 현재까지 성동구의 근현대사를 고스란히 함께한 지역 속의 대학, 세계 속의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동구 주민은 한양대학교와 학생의 존재를 교육기관 또는 임대원룸시장 및 외식시장의 고객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활동가로서 늘 이 문제를 고민해 왔습니다. 저를 선정해 주신 것은 저의 문제의식을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 대학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보자는 제안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지역의 관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시는 것으로 압니다. 어떤 계기로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하시게 되었는지요?

2017년 가을 즈음 한양대학교 사회혁신센터와 성동시민사회는 우연한 계기를 통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서로를 조금씩 확인하는 과정 안에서 각자 서로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노력만 한다면 의미 있는 점점들을 찾을 수 있겠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 접점은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하는 한양대학교와 지역시민사회 공동의 희망에서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한양대학교와 주민의 관계를 높이는 지점부터 시작하기로 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한양대학교는 주민들이 대학에 대해 호의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세미나실, 체육관 등 학교가 보유한 공간을 지역사회에 내어 주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지역은 한양대학교 사회봉사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마을, 자치, 자활, 청년, 멘토링 영역에서 학생들이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8월 중순 진행된 APYE 프로그램은 주민이 직접 학생들과 지역현안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지적생산물을 통해 학교와 지역이 더 나은 지역으로 변화하고자 한 첫 사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 지역활동가로서 대학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국에서 대학은 최고의 지성집단입니다. 대학으로부터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기술발전과, 사회발전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대학은 지식생산의 주체이며, 지식전달자의 주체이자, 지식의 응용 및 활용주체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은 빠르게 변화하는 지역사회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학교 또한 현장기반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양대학교는 지역 속의 대학입니다. 지역을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글로벌 대학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한양대학교와 성동시민사회는 이제 첫발을 떼고 있으며 이 첫걸음은 사람하기 나는 도시, 주민과 학생이 주인 되는 도시, 지적성숙이 사회에 기여되는 거대한 실험도시로 가는 걸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역사회 전체를 거대한 연구소로 변화시킨 세계 속의 한양대학교를 꿈꿔봅니다.

2018 한양을 빛낸 체인지메이커

2018년을 빛낸 한양의 체인지메이커를 소개합니다. 한양의 건학정신을 실천하여 세상을 바꾼 그들의 얘기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루나팀(와카스 외 5명)_ 필리핀 오지에 빛을 밝히다

LUNA팀의 와카스 타놀리(Waqas Tanoli)학생은 2018년 7월 APYE 필리핀에 참가하여 퀘존 지역의 Tulay Buhangin 커뮤니티와 인연을 맺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PYE 이후에 커뮤니티를 재방문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와카스) APYE 참가 당시 저는 지속가능발전목표 7번 '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 팀에 배정되어 커뮤니티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커뮤니티 주민의 절반 이상이 에너지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그나마 전기 사용이 가능한 주민마저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고, 저 역시 소셜 임팩트를 창출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저로 하여금 커뮤니티의 에너지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는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 Seventeen Hearts Festival의 해외봉사 공모전을 통한 자원조달의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필요로 했는데, 프로젝트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주민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APYE 로컬 이머션을 마치고 후속 프로젝트를 위해 커뮤니티를 재방문한 팀은 저희 팀이 유일했다고 합니다. 성공적인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줬습니다. 날씨가 궂은 날에도 많은 주민들이 워크숍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는 다음 단계에도 동참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하며 아쉬움을 표현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주민들의 인식변화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이들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팀이 준비한 워크숍에 150명이 넘는 주민들이 참여했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전기세를 아끼는 다양한 방법을 익혔습니다. 주민들에게 질문이 쇄도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후속 프로젝트 계획은 어떤가요?

후속 프로젝트 계획은 커뮤니티 전체에 재생가능한 태양열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커뮤니티 어느 곳에도 가로등이 설치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해가 지면 주민들의 불안감이 큼니다. 2019년에는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주민들이 직접 태양열 가로등을 제작하고 설치할 수 있게 돕는 일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더불어 주민들에게 기술력을 전파하여 생계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 역시 목표 중 하나입니다.

LUNA 프로젝트의 경험을 통해 스스로 체인지메이커로 성장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의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실감했습니다. 인종, 성별, 종교,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또 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목표보다 더 큰 꿈을 꾸게 되기도 했습니다. 작은 커뮤니티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를 무대로 소셜임팩트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의 새로운 꿈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활용 캠페인

가로등 설치

이연희 교수_ Knitting으로 사랑을 잇다

교수님과 사회혁신센터의 인연은 지금으로부터 4년 전으로 거슬러올라갑니다. 2016년도에 한양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 이지수학생이 필리핀 공동창업자와 함께 의류 소셜벤처 니노니나 클로딩을 창업했는데, 니노니나 클로딩 창업에 기술자문 등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회혁신 프로젝트에 함께 해주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그때가 성수동 지역이 개발되면서 '소셜패션'이라는 개념이 수면 위로 떠오르던 시기에요. 한 대학원생이 소셜패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듣고 저도 '이게 뭘까?' 라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마침 그때 성태현 교수님을 통해 니노니나 클로딩 창업에 대해 알게 됐고, 현장을 보기 위해 필리핀으로 갔어요. 처음엔 APYE 심포지엄에서 학생들이 발표하는 걸 보러 갔는데 그 때 참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참 똑똑하고 영특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서진석 센터장님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여기 와있는 게 이 중에 몇 명이나 계속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게 될까요?" 센터장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아닌 친구들이 90%가 넘을 수도 있지만, 이 중 몇 안되는 친구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해 더 깊게 고민하고, 세상 밖으로 나아간다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일거라고. 그 때 젊은이들의 또 다른 세계를 봤던 것 같아요. 니노니나 클로딩 현장도 생각보다 잘 되어있더라고요. 직접 가보니까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지가 한 눈에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 현실적인 문제로 니노니나 클로딩이 진행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2019년 1월에 필리핀 나가시로 떠난 동계 해외봉사활동에 다시 한 번 함께 해주셨어요. 당시 나가시에서 교수님과 의류학과 학생들은 현지 여성분들에게 니팅(뜨개질) 교육을 진행하셨습니다. 현지 여성이 생산한 니팅 상품을 학교기업과 연계하여 판매하는 장기 프로젝트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니팅 교육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그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니노니나 클로딩에 대한 아쉬움을 한켠에 간직하고 있었는데, 필리핀에 또 다른 커뮤니티를 발굴해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니팅(뜨개질)을 활용한 의류 프로젝트였죠. 망설임 없이 일단 가겠다고 했어요. 필리핀 특성에 맞춰서 '크로세'라고 하는 핸드 니팅 수업을 준비했어요. 현지 여성 열 분 정도가 참여해주셨어요. 기본적인 크로세 수업과 가방 뜨기, 모자 뜨기, 옷 뜨기까지 진행했어요. 크로세를 처음 해보는데, 제일 열심히 했던 분이 계세요. 봉사활동 끝나고 남은 실을 이 분에게 주고 왔는데, 며칠만에 그 실을 다 써서 모자랑 가방을 뜨셨더라고요. 그 분이

저와 같이 갔던 의류학과 학생들이랑 아직도 연락을 합니다. 제 딸도 통역봉사자로 같이 갔었는데, 매일 연락을 주고 받아요. 매일 매일 뜬 작품 사진을 보내고 있어요.

봉사활동을 통해 느끼신 점은 무엇인가요?

필리핀에서 의류 교육 봉사를 진행하면서, 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잡았어요. 내가 공부한 거, 내가 잘하는 걸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의미있는 일이에요. 한양대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봉사활동 다녀온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올렸을 때, 한 교수님이 본인도 다음에 이런 활동 같이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공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거예요. 학교에서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각자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협업방안을 생각해본다면 얼마나 더 대단한 일이 생기겠어요. 정말 멋진 일이에요. 이걸 다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전에 사회봉사단 김성환 단장님께서 '봉사는 나를 위한 기쁨이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 그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맘껏 이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터를 닦아준거예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거든요. 각자의 일상 속에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나눔을 실천하면서 나 또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해요.



2018 한양을 빛낸 체인지메이커

2018년을 빛낸 한양의 체인지메이커를 소개합니다.
한양의 건학정신을 실천하여 세상을 바꾼 그들의 얘기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한울회(여교직원회)_ 체인지메이커에게 힘이 되는 울타리



카이나 프로젝트 후원 MOU 체결

지난 해 11월 Seventeen Hearts Festival에서 한울회가 KAINA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행사를 보면서, 한울회가 어떤 단체인지 궁금했습니다. 한울회에 대해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양대학교 울타리 모임이라는 뜻으로 한양대학교 재직중인 여직원들이 1985년부터 이어온 모임입니다. 친목단결과 활동을 통해 회원들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정신을 기르고, 서로가 마음으로부터 단결하고 신뢰하는 영구적인 유대를 맺고자 하며, 유능한 인재로서 학교의 발전과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여성이 되고자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바쁜 일상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직접적인 후원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이나' 후원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한울회 대표로 한양사회혁신위원이라는 기회를 통해 '카이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학생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더한다면 좀 더 지속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회원들의 마음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카이나 후원을 통해 개인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도 무엇인가를 바꿀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알아봐주는 것도 지원하는 것도 소중하구나.'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일하면서도 어렸을 적 나의 아이디어를 잃어버렸었지,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그냥 흘리지 않았나, 알아봐주지 못했나 하는 생각과 함께 지금부터라도 놓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소셜벤처가 실제로 필리핀에서 어떤 희망과 나눔으로 이어지는지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2019년 1월에는 기회가 되지 않았지만 7월에 기회가 된다면 방문해서 학생들의 열정이 필리핀 현지 여성들의 일자리에 어떻게 펼쳐지는지 느껴보고 싶습니다.

카이나 프로젝트 후원과 같은 참여는 직원사회에서 흔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한울회의 정신이 직원사회에 어떻게 확산되었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으신지요?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처한 환경과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이들에게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고 사랑의 실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직원사회에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의견을 드려보자면, 직원연수나 체육대회 대체 행사 또는 별도로 직원들만이 함께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있었으면 합니다. 모든 직원이 매번 할 수는 없겠으나 참여 가능한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있다면 이는 한양대학교 직원간의 유대는 물론이고 한양대학교라는 공동체 의식고취와 한양대학교 건학정신을 몸소 실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멘토스(심영우,임세훈)_ 멘토스, 멘토링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멘토스팀은 멘토링 활동을 오랜 기간 지속해오면서, 얼마 전 <멘토링을 부탁해>라는 책까지 엮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양대학교 철학과 13학번 동기로 이루어진 멘토스팀의 심영우, 임세훈입니다. 대학시절 내내 멘토링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다가 이것을 책으로 엮어 내보면 어떨까 생각하게 되었고, 장장 2년의 기간 동안 책을 써서 이번에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책을 쓰게 된 스토리를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는 같은 학과 동기이다 보니 책을 쓰기 전에도 친하게 지내며 자주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마침 저희 모두가 봉사활동에 뜻이 있어, 각자 다른 기관에서 멘토링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느덧 저희의 주된 대화 소재가 멘토링을 하며 생긴 각자의 고민들로 바뀌어 갔습니다. 서로의 경험들을 공유하다보면 꽤나 많은 고민이 해결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가 저희처럼 다른 대학생 멘토들도 멘토링 활동에 대해 고민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책을 써보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멘토링 봉사활동 가이드북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과감하게 실천으로 옮겼더니 정말 멋집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의 과정도 굉장히 특별하다고 들었습니다. 한 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선 저희 셋 다 대학생이다 보니 책을 쓰려고 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양학술타운'이라는 스마트교수학습센터의 학생 연구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한양대 사회혁신센터에 찾아가 서진석 센터장님께 저희의 멘토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렸고, 센터장님께서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 출판에 필요한 추가적인 비용들을 마련하기 위해 한양대학교 85학번 동기회 선배님들께서 주시는 '드림장학금'에도 지원하여 책 출판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멘토분들과 선배님들의 도움에 힘입어 저희는 원고 마무리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고, 그렇게 <멘토링을 부탁해>가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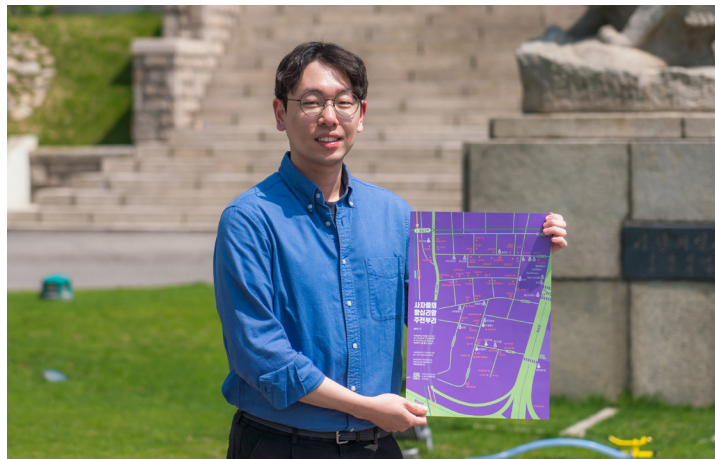
와... 정말 한양에 의한, 그리고 한양 에 의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끝으로 출간된 <멘토링을 부탁해>를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는 <멘토링을 부탁해>의 전 수량을 멘토링 봉사활동을 운영하는 기관과 단체들에 기부할 계획입니다. 각종 기관과 단체들을 통해 대학생 멘토들에게 저희 책을 전해주고, 멘토들이 고민이 생길 때마다 이 책을 펼쳐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입니다. 멘토링 봉사활동이 더 많이 이루어져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는 아이들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책이 그러한 시작을 하는데 있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정말 보람차고 기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더 많은 분들이 멘토링 활동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8 한양을 빛낸 체인지메이커

2018년을 빛낸 한양의 체인지메이커를 소개합니다.
한양의 건학정신을 실천하여 세상을 바꾼 그들의 얘기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탄_ 모두를 위한 '배리어 프리 맵' 제작



안녕하세요. 최근 완료된 SK행복나눔재단의 장애접근성지도 제작 프로젝트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한양대학교 경영학부/사회혁신융합전공 재학 중인 이탄이라고 합니다. 저는 장
애 인식개선이나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개선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양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장애학우분들이 학교를 다니는 데 너무 힘들어 하는 모
습을 보면서 늘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좀 더 편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인권개선 캠페인을 진행해 왔고 학교 시
설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도록 끊임없이 건의해서 학교당국을 괴롭혔던 기억이
남기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직원분들께 미안함과 감사함을 전합니다.(웃음)

'배프맵 프로젝트'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됐나요?

사범대 안미리 교수님과 학생들이 함께 Universal Design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다가 나온 캠퍼스 지도 제작이라는 아이디어로부
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캠퍼스 지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고민하던 중 우연히 SK
SUNNY측의 동참 제의를 받았고 이후, Barrier Free Campus Map 프로젝트에 참여하

게 되었습니다. 저의 의견에 더해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며 앞으로 진행할 필
수사항 및 준수사항을 신신당부하고 봉사자와 함께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정보(
장애이용 화장실, 승강기, 출입문 문턱 등) 입력을 기록한 결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엔젤스윙 대표님의 드론 촬영과 웹페이지 개발이 합쳐
져 배리어프리캠퍼스맵 1.0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배프맵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나요?

배프맵 1.0을 기반으로 배리어프리캠퍼스맵 2.0을 시작했습니다. 2.0버전의
차별점은 교내 캠퍼스에 국한하지 않고, 범위를 크게 넓혔다는 점입니다. 배프
맵 제작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모아 지하철, 왕십리역 일대 주변 먹자골목 등 좀
더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사를 했습니다. 배프맵 2.0은 SK SUNNY와 서울
시가 운영하는 공간정보플랫폼(서울형 지도태깅)이 결합된 프로젝트로 규모
가 커졌습니다. 정보를 사용자가 친숙하게 볼 수 있도록 맵이 디자인을 맡
았고, 무의협동조합은 지하철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자문을 맡아 주셨습니다.

배프맵 제작 과정에서 힘들거나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나요?

지역상권을 조사할 때 식당 들어가 테이블 조사하고 장애인 화장실 유무, 출입 가능
한 통로 확인하고 나가는 게 눈치가 보였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바닥이 고르지 않은
골목이나 도로를 일일이 파악하는 일도 무척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하철 역사
조사활동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 길을 양보해 주지 않는 승객
들로 인해 육체적으로 힘들었고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꿈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장애, 교육, 빈곤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겪어오면서 살아온 환경이 있기에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졸
업 후에는 청각장애를 위한 언어교육 관련 역량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는 한 공간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교육 받는 모습을 이루는 환경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CHANGE MAKER

2018 한양을 빛낸 체인지메이커

2018년을 빛낸 한양의 체인지메이커를 소개합니다. 한양의 건학정신을 실천하여 세상을 바꾼 그들의 얘기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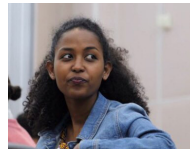
한양대는 재미 사업가 김동구 이사장(D.K.Kim Foundation)의 숭고한 뜻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학생들이 세상을 보다 따뜻한 곳으로 바꿀 체인지메이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8년 7월부터 한양대 유학생들에게 D.K.Kim Scholarship을 수여하여 APYE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APYE를 통해 체인지메이커로 성장하고 있는 D.K.Kim 장학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D.K.Kim Scholarship 장학생 12명_수혜를 사회로 돌리다



Nur Aisha Abd Rahim
(말레이시아)
화학공학과 학사과정
2018년 7월 APYE 필리핀 참가

“단순한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했는데, 필리핀에 도착하는 순간 제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필리핀 홈스테이 가족부터 팀원들까지, 세계 각지에 또 다른 가족들이 생긴 게 가장 기쁩니다.”



Mekidelawati Girma Tirfe
(에티오피아)
기계공학과 학사과정
2018년 7월 APYE 태국 참가

“같은 사회문제를 바라보면서, 서로 다른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APYE 참가 이후 어떤 문제를 해결하든, 내 솔루션이 지속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Quyen Vu Thi
(베트남)
화학과 박사과정
2018년 7월 APYE 태국 참가

“랩실 생활로 정신없이 바쁜 제 일상에 새로운 경험을 더하고 싶어서 지원했으나, 그 이상의 것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스스로를 표현하고, 변화를 만들고 싶어 하는 친구들을 만나, 누구나 체인지메이커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Kamoliddin Yuldoshkhujjev
(우즈베키스탄)
기계공학부 학사과정
2019년 1월 APYE 필리핀 참가

“떠나기 전에는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생활해야한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불편한 점도 많았지만, 자연스럽게 커뮤니티에 녹아들면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깨고 돌아온 것에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Waqas Tanoli
(파키스탄)
기계공학과 학사과정
2018년 7월 APYE 필리핀 참가

“APYE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저와 같은 청년층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아이디어 제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Ashley Nicolle Aguirre Diez
(파나마)
산업공학과 학사과정
2018년 APYE 태국 참가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애쓰는 커뮤니티 주민들로부터 많은 걸 배웠습니다.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현실의 다양한 장애물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Vanessa Lafaurie Pallares
(콜롬비아)
기계공학부 학사과정
2019년 1월 APYE 필리핀 참가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벗어나 다양한 배경의 친구들과 협업하며 크게 성장했음을 실감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행동하고 실천하는 체인지메이커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Abubakar Sharafat
(파키스탄)
건설환경공학과 박사과정
2019년 1월 APYE 태국 참가

“세계 시민으로서,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 모두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건설공학도로서, SDG 9번 '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확대', 'SDG 11번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Elvis Kyeremeh Boahen
(가나)
화학공학과 학사과정
2018년 7월 APYE 필리핀 참가

“참가자뿐만 아니라 퍼실리테이터부터 강연자 등, 행사를 만들어가는 당사자들이 모두 저와 같은 젊은 청년들이라는 게 놀라웠습니다. 우리 세대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Patrick Taulbjerg
(덴마크)
경영대학 MBA
2018년 7월 APYE 태국 참가

“좋은 동료이자 친구들과 깊게 교감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모두 같은 목표를 가지고 만났기 때문에 인종, 성별, 종교 등의 차이가 교감에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Nguyen Ngoc Quang
(베트남)
화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2019년 1월 APYE 태국 참가

“UN개발계획에서 각국의 동료 청년들과 목소리를 낼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함께 힘을 모을 때, 혼자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큰 임팩트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Marie Grace Ishimwe
(르완다)
전기생체공학부 학사과정
2019년 1월 APYE 필리핀 참가

“책이나 수업을 통해서 접할 수 없는 생생한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 세대를 대표하여 주체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04

지속가능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HANYANG
Social Innovation Platform

지속가능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개요]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인재양성 선순환 구조 창출을 위한 재원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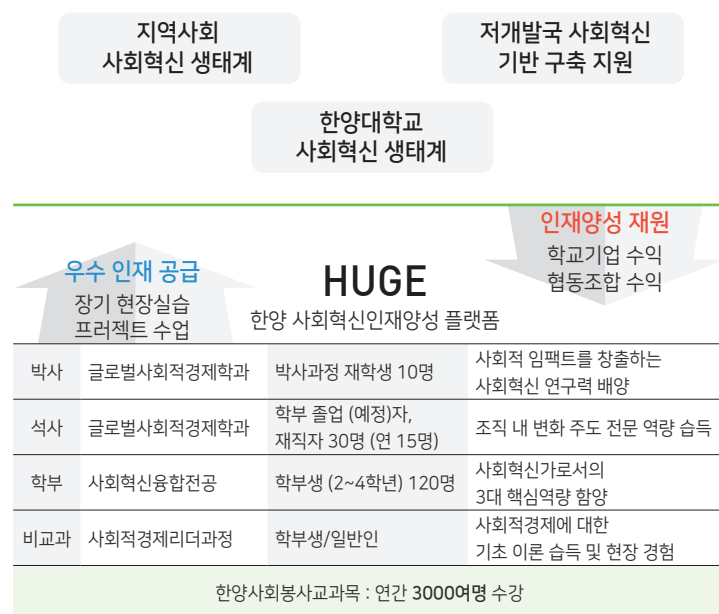
한양대학교가 추구하는 사회혁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사회와 세계를 아우르는 사회혁신 생태계가 조성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한양대는 HUGE라는 사회혁신인재양성 플랫폼을 통해 생태계에 우수한 사회혁신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역할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재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기업 L.A.C. Studio와 사회적협동조합 락(LAC)의 설립의 중요성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2018년도에는 재원확보의 관점에서 인재양성의 선순환 구조의 가능성을 확인한 의미있는 한 해였다. 정부, 지자체, 기업 등 외부의 자원과 함께 LINC+사업단, 국제처 등 교내 자원과 연계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고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2019년도에는 체인지메이커들의 실천을 돕기 위해 재정자립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계획이다. 학교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한 수익 창출과 기업의 CSR 자금과 연계한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참여로 사회혁신 인재양성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꾀할 계획이다.

[교내의 재정 확보 내역]

구분	사업명	지원기관	주요내용
교외	한양-SK MOU	SK그룹	한양-SK 체인지메이커 양성 기금
	선도메이커 글로벌 체험과정 운영	한국과학창의재단	국내 메이커 전문가 그룹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 프로그램 운영
	나눔단체중사자 역량강화교육	보건복지부	서울·대전·대구·광주지역 NPO 활동가 사회혁신 역량강화 교육
	대학(원)생 혁신역량 강화사업	서울시	서울지역 대학(원)생 혁신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APYE Korea	성동구	사회혁신 청년 교류프로그램 APYE Korea 개최 지원
교내	국제역량 고도화사업	국제처	한양대 유학생 사회혁신 청년 교류프로그램_참가비 지원
	LINC+사업	교육부	사회혁신 산학협력을 위한 인력채용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APYE Korea 공동 주관사업	아태지역연구센터	사회혁신 청년 교류프로그램 APYE Korea 개최 지원
	여성공학인양성사업(WE-UP)	교육부	한양대 여성 공학도 사회혁신 청년 교류프로그램_참가비 지원
합계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인재양성의 선순환 구조

학교기업 L.A.C. Studio: 비즈니스를 통한 사회혁신, 학교기업 L.A.C. Studio

2018년 11월 15일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 메인홀에서 한양대학교 학교기업인 L.A.C. Studio 쇼케이스가 열렸다. 이영무 한양대 총장, 김성환 사회봉사단 단장을 포함한 교내의 주요 관계자가 모인 자리에서 개최된 쇼케이스에서 성태현 대표(LINC+사업단장)는 “교육과정에 창출되는 기술과 서비스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이 수익을 교육에 재투자하는” 학교기업의 설립취지를 밝히면서,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궁극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사회혁신인재도 육성하고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L.A.C. Studio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학교기업 L.A.C. Studio는 대학의 교육과 산학협력 자원을 지역기업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2018년 6월 산학협력단 산하에 설치되었다. L.A.C. Studio라는 명칭은 건학정신인 ‘사랑의 실천(Love. Action. Change.)’에서 유래했으며, 안정적인 운영과 교내 다양한 자원의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조직은 산학협력단 산하에 두고, 대표는 LINC+사업단장이 맡으며, 실질적인 운영은 사회혁신센터가 주관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학교기업(L.A.C. Studio) 쇼케이스에서 성태현 LINC+사업단장이 사업모델과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L.A.C. Studio의 비즈니스 모델은 세 가지다. 먼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사회혁신 교류 프로그램인 Asia Pacific Youth Exchange(APYE) 프로그램의 국내 마케팅을 담당한다. 학교기업은 마케팅으로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사회혁신전공 학생들에게 현

장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현장실습생들은 직접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에 참여하여 실천마케팅과 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향상할 수 있다.

두 번째 수익모델은 SSIR(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한국어판의 출판과 판매다. 본교는 2018년 4월 스탠퍼드 대학과 SSIR 한국어판 독점계약을 맺고 가을호를 첫 발간했다. 번역과 편집은 경영대학 신현상 교수와 사회혁신융합전공을 포함한 학생들이 주도함으로써, 수익창출과 함께 사회혁신에 대한 학습의 기회로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기업은 지역 소상공인과 글로벌 소셜벤처와 협력하여 학교 기념품을 제작, 판매한다. 제3회 Seventeen Hearts Festival에 활용된 각종 기념품은 학교기업과 지역 소상공인이 제작하여 판매한 제품이다. 지역 소상공인에게 매출 증가의 기회가 되고 학교기업은 판매수익 뿐만 아니라 의류학과와 디자인전공 계열 학생들이 실전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2018년 11월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 학교기업은 4개월 만에 2억 여원의 매출을 올림으로써,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며, 그 수익을 다시 학생들의 교육에 재투자하는 사회혁신인재양성 선순환 모델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가능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한양-SK '사회변화를 주도하는 체인지메이커 양성' 업무협약 체결

2018년 4월 국내 최초로 세계적인 사회혁신 대학들의 네트워크인 '아쇼카 U' 가입에 성공한 한양대가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는 SK그룹과 손잡고 세상과 공감하며 사회변화를 주도하는 체인지메이커 양성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2018년 11월 15일, 한양대학교와 SK그룹은 사회혁신과 변화를 만드는 '체인지메이커'를 양성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이영무 한양대 총장, 김종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장, 최광철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사회공헌위원장, 김용갑 SK행복나눔재단 총괄본부장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15일 한양대학교에서 이영무 한양대학교 총장(좌)과 최광철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사회공헌위원장(우)이 체인지메이커 양성 위한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 하는 모습

본 협약을 토대로 한양대는 2019년 2학기 사회혁신 관련 박사과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내 최초로 학부·석사·박사를 아우르는 사회혁신 통합 교육과정을 구축하게 된다. 한양대는 학부 대상으로 사회혁신융합전공을 설립하고 학생들에게 체인지메이커십 기본 교육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SK는 총 9억(연 3억, 3년 지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양대와 SK그룹은 이미 SK가 운영하는 '사회혁신 교육자네트워크(ENSI)', 대학원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장학금 지원, 대학생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SK청년비상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혁신 관련 파트너십을 다져왔다. 여기에 본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단편적인 프로그램 운영 협력을 넘어, 비교과-학부-대학원-재직자에 걸쳐 통합적으로 사회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대학과 기업의 새로운 사회혁신 파트너십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양대 이영무 총장은 "한양이 양성하고자 하는 인재를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Public Mind), 창의적 가치창출역량(Value Creation), 실천을 위한 자원연계역량(Global Networking)의 '체인지메이커십'을 갖춘 인재"라고 정의한 뒤, "SK와의 협력사업을 통해 커리어 성장 단계를 아우르는 통합적 사회혁신 교육과정을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락(LAC)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재무적 가치와 함께 사회적 가치도 창출하는 '사회혁신 산학협력' 콘셉트로 LINC+사업을 수주한 한양대학교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집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인 '체인지메이커그룹(이하 CMG)'을 2017년부터 결성해 운영 중이다. '디자인씽킹신산업창출CMG', '사회혁신인재양성CMG' 등 산학협력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드림팀을 운영 중인 한양대는 지역사회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학교기업 L.A.C.Studio를 중심으로 사회혁신인재양성CMG, 디자인씽킹신산업창출CMG 중 지역산업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기관, 기업이 모여 사회적협동조합 락(LAC) 설립하기로 뜻을 모았다. 2018년 10월 26일 설립총회 이후 현재 고용노동부 설립인가 심사가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의 설립인가가 완료되면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추고 대학과 지역사회의 기업이나 기관이 함께 비즈니스를 통해 지역사회를 혁신하는 사회적가치창출형 사회적협동조합의 선도모델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취약계층 직무역량 강화 교육사업, 지역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 임직원 직무역량 강화 교육사업, 지역 취약계층 대상 창업지원 정부 및 지자체, 산업체 위탁사업, 지역 취약계층 여성 일자리 제공사업 연계 청소년 멘토링 사업 등 성동구를 중심으로 교육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사회적협동조합 락(LAC)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활동을 통하여 경력단절 여성, 다문화가정 여성, 장애인 및 청년 구직자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역량개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지역 취약계층 직무역량 강화 교육사업, 지역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 임직원 직무역량 강화 교육사업, 지역 취약계층 대상 창업지원 정부 및 지자체, 산업체 위탁사업, 지역 취약계층 여성 일자리 제공사업 연계 청소년 멘토링 사업 등 성동구를 중심으로 교육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2018년 10월 26일 한양대학교 체인지메이커스룸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락(LAC)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진행되었다. 왼쪽부터 성기철 실장(TMD교육그룹), 김형민 대표(얼반유스아카데미), 성태현 단장(한양대 LINC+사업단), 김종걸 원장(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신상선 이사장(친해교육사회적협동조합), 이영동 대표(소셜밸런스), 서진석 센터장(한양대 사회혁신센터)

05

한눈에 보는 한양의 사회혁신

HANYANG
Social Innovation Platform

한눈에 보는 한양의 사회혁신

프로그램	대상	시기	운영내용 및 성과
한양사회봉사	재학생	2018.03~2019.02	1학기, 여름학기, 2학기, 겨울학기 로 연간 총 4회 진행 참여자 수 3,109명 프로그램 수 389개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재학생	2018.3~2019.2	목적 전공 연계 사회문제 해결 실천 역량 제고 내용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관리시스템을 통한 효과적인 학생지원 체계 마련, 이공계열, 비이공계열간 특성화를 통한 확산 누적참여자 수 2134명(참여학과: 1833명/비참여학과: 301명)
현장실습	재학생	2018.3~2019.2	내용 장기현장(12주이상) 및 단기(4주이상 12주미만)로 구분하여 진행 누적참여자 수 881명(참여학과 493명 / 비참여학과 388명)
사회적경제리더과정 (일반)	지역사회 기업 및 비영리 기관	2018.3.~2019.2.	목적 일반인 및 다양한 분야 전문가 사회혁신 재교육 참여인원 26명 (한양대: 3명, 일반인 및 타대학: 23명) 운영주관 국제대학원 글로벌사회경제학과 중심의 사회혁신인재양성 CMG 성과 다양한 분야에 활동중인 사회혁신전문가 및 일반인 선발완료 (2018학년도 1년 운영프로그램)
사회적경제리더과정 (학부)	재학생 및 타교생	2018.2.~12.	목적 사회혁신가 육성 참여인원 40 (한양대: 20명, 타대학: 20명) 성과 사회혁신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에 타 대생 20명 선발로 교육대상 확대
Social Venture Bootcamp	재학생 및 개발도상국 해외학생	2018.5.11.~14. 2018.8.31.~9.2.	목적 소셜벤처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학생들에게 실제 창업에 필요한 실무 교육을 제공하여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학생 창업 확산 참여인원 105명(참여학과: 50명, 비참여학과: 21명, 타교생: 3명, 해외참가자 31명) 성과 참여학과 및 비참여학과 재학생의 소셜벤처 창업 실무 역량 강화 및 소셜벤처 창업건 자율성과지표 달성
Kids Changemakers 워크샵	지역아동센터 아동 교직원 자녀	2018.5.13. 2018.5.19.	목적 놀이활동을 통한 유아동 대상 지속가능발전목표 교육 성과 유아동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해도 고취
제79주년 개교기념 사회봉사상 시상식	재학생 수상자	2018.5.15.	목적 건학정신에 따라 '사랑을 실천한' 모범적인 사례를 취합하여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재학생에게 시상

프로그램	대상	시기	운영내용 및 성과
캠퍼스 리퍼데이 바자회	전 대학 구성원	2018.5.17.	목적 리퍼데이(반품 상품 또는 반품 상품을 일부 수리한 제품)제품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 개발도상국 학생들의 교류프로그램 참가비 지원 참여기관 위메프, 아름다운 가게 성과 총 596명의 구매자, 수익금 약 1,416만원을 창출하여 역대 캠퍼스 리퍼데이 최고 기록 갱신
사회혁신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전교 및 타대학 확산)	대학	2018학년도 여름/겨울계절학기	목적 사회혁신전문 기관과 협력을 통한 심화과목 운영 참여인원 재학생 15명, 타교생 29명 성과 루트임팩트와 공동으로 산학협력 교과목 운영
NPO 활동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전국 비영리단체 재직자	2018.7.~11.	목적 전국(서울,대전,대구,광주) 비영리단체 재직자 대상 사회혁신 역량강화 교육 참여인원 170명(서울 80명, 그 외 지역 각 30명) 성과 수주금액 총 88,000,000원
APYE (Asia Pacific Youth Exchange)	재학생	2018.7. 2019.1.	목적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이해와 디자인씽킹 방법론을 바탕으로 필리핀과 태국에서 사회문제에 대한 솔루션 개발을 진행, 사회혁신역량 및 글로벌리더십 함양을 돕는 국제 청년 교류프로그램 참여인원 87명(참여학과: 56명, 비참여학과: 31명) 성과 참여학과 재학생 및 비참여학과 재학생의 사회혁신 마인드셋 강화 및 디자인씽킹 역량 증진
Play Aid Kit 재난안전교육	지역사회 청소년	2018.7.21.	목적 Play Aid Kit를 활용한 재난안전 워크샵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달성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교육프로그램 성과 Play Aid Kit의 교육효과 검증
한양 체인지메이커 멘토링캠프	재학생 멘토 전국구 중고등학생 멘티	2018.7.30.~8.10.	목적 교육-문화 소외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 대인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멘토링을 진행하는 하계 캠프 참여인원 재학생 멘토 111명, 청소년 멘티 183명 성과 농어촌 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내면의 성장 도모 및 재학생 멘티의 역량 강화
APYE in KOREA	재학생	2018.8.12.~8.20.	목적 아태지역 20개국 180명의 청년이 함께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해가는 글로벌 청년교류프로그램 참여인원 180명 (한국참가자 50명(한양대 8명 포함), 해외참가자 130명) 성과 사회혁신활동 참여도 상승

한눈에 보는 한양의 사회혁신

프로그램	대상	시기	운영내용 및 성과
대학생 혁신역량 강화사업	서울 지역 소재 대학 재학생	2018.8.~12.	목적 대학(원)생 대상으로 사회혁신 역량 강화 프로그램 3개 트랙 운영 (디자인씹킹, 소셜벤처 창업, 디지털커뮤니케이션) 참여인원 75명 성과 수주금액 총 70,000,000원
한양사회혁신포럼	사회혁신위원회, 지역사회 및 해외전문가 등	2018.8.14.	목적 대학, 지역사회, 글로벌 사회혁신 기관 등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토론의 장 마련 성과 옥스퍼드 대학, 필리핀 부통령실 등 다수의 국제 귀빈 대상으로 한양대학교와 국내 소셜섹터의 성과 공유
배리어프리맵 제작활동 (장애접근성 지도)	재학생	2018.9.~12.	목적 교내외 장애접근성 정보를 수집하여 온오프라인 지도 제작 성과 참여학생 총 12명, SK행복나눔재단, 협동조합 무의, 매드맵, 모아스토리 등의 외부기관과 공동운영하여 산학협력 도모
Seventeen Hearts Festival	전 대학 및 지역사회혁신기업	2018.11.15.~11.17.	목적 대학, 지역, 기업, 국제기구의 사회혁신 산학협력을 위한 노력/성과를 국내외 청년들과 공유하는 축제 참여인원 1,000명 성과 한양대학교 사회혁신 산학협력의 실적을 지역사회 및 글로벌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공유
X20소셜해커톤개최	청년창업가 및 국내 대학생	2018.11.15.~11.17.	목적 무(x)에서 유(O)를 창조하는 벤처정신 함양 주관 LINC+사업단 / CJ올리브네트웍스 공동 내용 기획, 개발, 디자인 분야 4인 1조로 48시간 동안 해커톤 형태의 경연/ CJ올리브네트웍스 임직원 40여명 멘토 참여 참여 고등학생부터 대학원생까지 100여명 참가
스탠퍼드소셜이노베이션리뷰(SSIR) 한국어판 창간기념 국제 컨퍼런스	소셜섹터 현업자 사회혁신 연구자 및 활동가	2018.11.15.	목적 SSIR 한국어판 창간 기념으로 아시아 지역의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협업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의 장 마련 성과 SSIR 발행인, 편집인, 아시아의 5개국의 사회혁신 활동가들이 참여
적정기술 국제 컨퍼런스	적정기술 학회 회원 및 일반인	2018.11.23.	목적 기술을 활용한 사회혁신 연구 및 프로젝트 가능성 타진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
2018 제 7회 대한민국 교육기부박람회	지역사회 청소년 및 교육업 현업자	2018.11.22.~11.25.	목적 유아동, 청소년 등을 위해 한양대학교의 사회혁신 교육 콘텐츠 공유 및 시연 성과 부스 방문자 약 500명, Play Aid Kit, SDGs 리터러시 보드게임 등의 교구 효과 검증

프로그램	대상	시기	운영내용 및 성과
라이언컵경진대회	한양대 동문 및 재학생	2018.12.19	목적 동문 및 재학생의 창업 활성화 주관 LINC+사업단/창업지원단 공동 내용 비즈니스모델 /사회혁신 분야 창의적아이템 공모 성과 229명 77개팀 참여
소셜벤처 창업동아리 포럼 "끝장을 보는 여성들"	재학생 및 일반인	2019.1.31	목적 여학생의 소셜벤처 창업트랙 참여도 상승 및 마인드셋 고취를 위한 여성 창업가 포럼 성과 참가자 약 150명
선도 메이커 글로벌 체험과정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자 및 교사·강사	2018.7.~2019.2.	목적 전국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자 및 관련 교사·강사 대상으로 글로벌 포럼 및 국외연수 운영 참여인원 120명(포럼 100명, 국외연수 20명) 성과 수주금액 총 60,000,000원
더착한기업 성동 선정	지역 사회혁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019.2.13.	목적 지역사회 소상공인과 대학의 건강한 산학협력을 통해 '사회혁신 산학협력'의 가치 공유 및 확산 선정기업 21개 성과 1차년도 '금호동 금남시장' 일대 가게 대상 착한기업 21개 선정, 2차년도 체인지메이커스그룹에 참여한 산학협력 활성화 참여 기업 등 21개 기업 추가 선정하여 총 42개 기업 확보
APYExtra	재학생	2019.2.21.~2.26.	목적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비즈니스모델 개발 교육 프로그램 참여인원 23명(재학생: 5명, 타교생: 8명, 해외학생: 20명) 성과 국내학생과 해외학생의 소셜벤처 공동창업 가능성 타진
동계 해외봉사 (필리핀 나가시)	재학생 및 교직원	2019.1.5.~1.20	목적 필리핀 나가시의 마오그마 빌리지의 통합 개발협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재학생, 직원, 교원 등의 모든 구성원이 직접 기획한 봉사 프로그램 참여인원 재학생, 직원, 교원 봉사단원 총 24명, 수혜 커뮤니티 주민 약 500명 성과 마오그마 빌리지의 환경 개선, 대학, 지역 NGO등과 파트너십 형성
동계 해외봉사 (필리핀 퀘존시)	재학생	2019.1.14.~20	목적 APYE 후속 프로그램으로, 퀘존지역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학생 자체 기획 봉사 프로그램 참여인원 재학생 6명, 수혜 커뮤니티 주민 약 200명 성과 현지 커뮤니티 주민의 마인드셋 고취, 장기 프로젝트를 위한 기반 형성

06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향한 선언과 행동



한양대학교 지속가능발전목표 선언문

한양대학교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건학정신을 바탕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한양의 인재는 이웃, 지역사회, 나아가 전 세계를 위해 배움을 실천하는 리더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한양의 인재상은 모든 세계시민이 함께 이루고자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철학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한양인은 시대가 요구하는 대학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함께할 것을 아래와 같이 선언합니다.



SDGs 1. 빈곤 퇴치 (NO POVERTY)

국제빈곤선 아래의 삶을 살아가는 인구수를 줄이기 위한 교육과 연구에 앞장선다. 지역사회와 국제사회의 빈곤층을 위해 봉사한다.



SDGs 2. 기아 종식 (ZERO HUNGER)

기술기반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식량 생산과 농림수산업계 활성화에 기여한다. 모든 교내 구성원의 영양결핍 없는 건강한 생활 유지를 지원한다.



SDGs 3. 건강하고 질 좋은 삶 (GOOD HEALTH AND WELL-BEING)

학생, 교직원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지원한다. 지역사회의 건강과 웰빙을 위해 봉사하며 학교의 자원을 지역 주민과 공유한다.



SDGs 4. 질 좋은 교육 (QUALITY EDUCATION)

성별, 인종, 장애, 나이, 종교에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공공을 위한 교육 자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한다.



SDGs 5. 양성평등 (GENDER EQUALITY)

교육과 고용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수립한다. 대학의 모든 활동에 여성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한다.



SDGs 6. 깨끗한 물과 위생 (CLEAN WATER AND SANITATION)

안전하고 저렴한 식수의 접근성을 높이는 연구를 선도한다. 위험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며 식수오염 근절에 앞장선다.



SDGs 7. 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부, 국내외 기관과 협력하여 에너지 공급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구를 지속한다. 교내 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을 향상 시킨다.



SDGs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대학 근로자의 종교, 성별, 나이, 국가, 장애 여부 등에 따른 모든 종류의 차별을 거부한다. 근로자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한다.

한양대학교 지속가능발전목표 선언문

한양대학교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건학정신을 바탕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한양의 인재는 이웃, 지역사회, 나아가 전 세계를 위해 배움을 실천하는 리더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한양의 인재상은 모든 세계시민이 함께 이루고자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철학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한양인은 시대가 요구하는 대학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함께할 것을 아래와 같이 선언합니다.



SDGs 9. 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확대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 확대를 촉진한다.

양질의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SDGs 10. 불평등 해소 (REDUCED INEQUALITIES)

다양성을 보장하고 평등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제도와 정책을 수립한다.

소수민족, 여성, 장애인 등으로 대표되는 소수인의 입학과 고용에 앞장선다.



SDGs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SUSTAINABLE CITIES & COMMUNITIES)

서적, 예술품 등 대학이 확보하고 있는 문화자산을 공공에 공개한다.

대학내 시설 및 녹지공간을 지역사회에 개방한다.



SDGs 12. 책임있는 소비와 생산 (RESPONSIBLE CONSUMPTION & PRODUCTION)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정책을 수립하며 사용량 추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교내 윤리적 소비문화를 확산한다.



SDGs 13. 기후변화 대응 (CLIMATE ACTION)

지속적으로 기후변화 재난 연구를 진행하며 연구결과를 정부기관과 공유한다.

교내 구성원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SDGs 14. 수자원 보호 (LIFE UNDER WATER)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해양오염 최소화를 도모한다.

해양 생태계 보존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지속한다.



SDGs 15. 육상 생태계 보호 (LIFE ON LAND)

삼림 황폐화와 사막화를 가속화하는 생산 및 소비활동을 지양한다.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을 확대하는 연구를 지속한다.



SDGs 16.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 증진과 제도 구축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어떤 형태의 부정부패도 용인하지 않으며, 대학내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정부 부처와 협업하여 정책연구에 자원을 투자한다.



SDGs 17.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PARTNERSHIP FOR THE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 국내외 기관과 협력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데이터를 수집, 측정하여 성과를 모니터링한다.